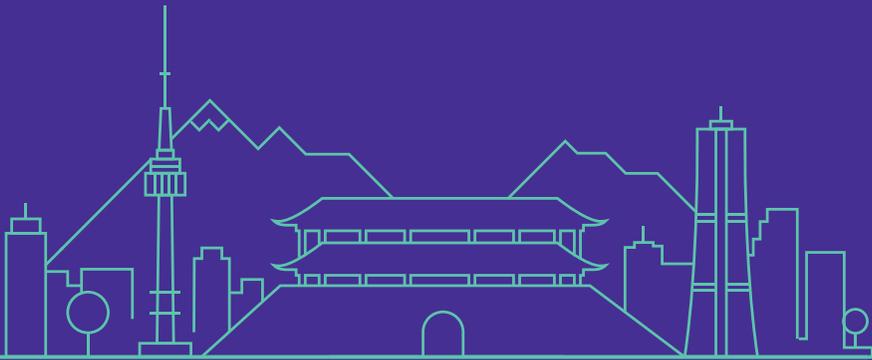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34-10



한 눈에 보는 서울 2018

SEOUL at a Glance



한 눈에 보는 서울 2018

SEOUL at a Glance

만든이

서울시

안정준(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김은영(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장)
이동수(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
최성용(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

서울연구원

변미리(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신인철(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박민진(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김해란(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장윤아(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한 눈에 보는 서울 2018

SEOUL at a Glance

CONTENTS

006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009	1. 보통 가구
010	서울의 보통가구는?
012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014	서울의 1인가구는?
016	서울의 여성 1인가구는?
018	서울의 고령자(65세이상) 1인가구는?
020	반려동물은 얼마나 키우나?
023	2. 보통 사람
024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026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028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주택 보유현황은?
030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032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034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035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037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039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041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042 **II. 서울의 사회생활**

045	1. 생활만족도
046	경제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048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050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052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055	2. 생활환경
056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058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060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062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은?
064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066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067	서울의 NO ₂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068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070 **III. 서울시민의 삶의 질**

- 072 서울시민은 어느 정도 행복할까?
 - 074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 076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일까?
 - 078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 081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 083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 084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

086 **IV. 서울의 시민의식과 가치**

- 088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 090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 092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 094 서울시민은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 096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098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 100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 102 서울시민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까?
 - 104 서울시민의 사회적 지원 연결망 정도는?
 - 106 서울시민의 결혼 가치관은?
 - 108 서울시민의 집안일 실천 정도는?
 - 110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부모 부양 주 책임자는?
-

112 **서울서베이란?**

- 114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 115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 116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 117 서울서베이의 활용
-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Households and People in Seoul



1. 보통 가구

- 서울의 보통가구는?
-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서울의 1인가구는?
- 서울의 여성 1인가구는?
- 서울의 고령자(65세이상) 1인가구는?
- 반려동물은 얼마나 키우나?



2. 보통 사람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주택 보유현황은?
-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01

보통 가구

Households in Seoul



서울의 보통가구는?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서울의 1인가구는?
서울의 여성 1인가구는?
서울의 고령자(65세이상) 1인가구는?
반려동물은 얼마나 키우나?

서울의 보통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서남3생활권 서남1생활권 서남2생활권	동남1생활권 동남2생활권 서남1생활권

2017년 기준 서울의 보통 가구주는 평균 연령 51.5세, 남성,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다. 평균 가구주의 모습에서 서울의 고령화, 고학력화 경향을 알 수 있다. 서울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45명으로 2005년 2.83명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인가구 이상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4~5백만원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3~4백만원 20.2%, 5~6백만원 16.6%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의 경우 2인가구 이상은 10.0%로 나타났으나, 1인가구는 전체의 4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1.5 세

남 / 전문대졸 이상 학력



평균 가구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4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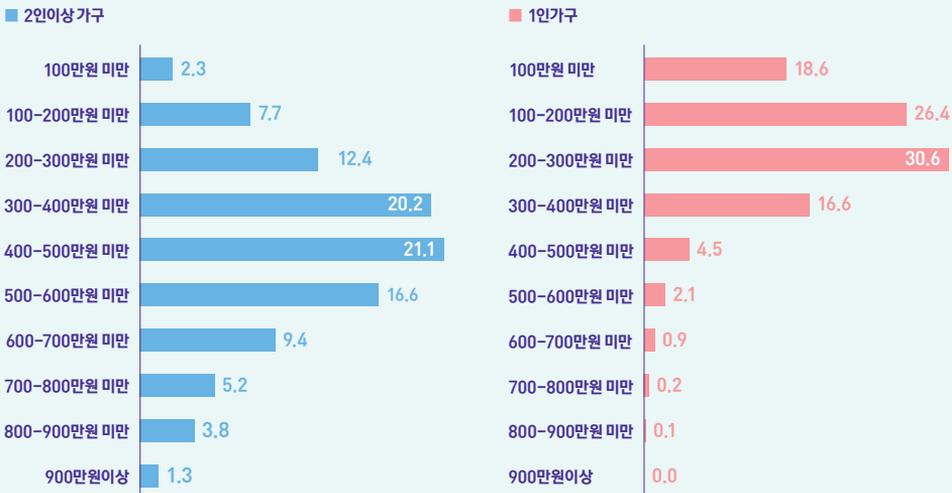
2인가구 이상의 월평균 소득 대표값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00 ~ 500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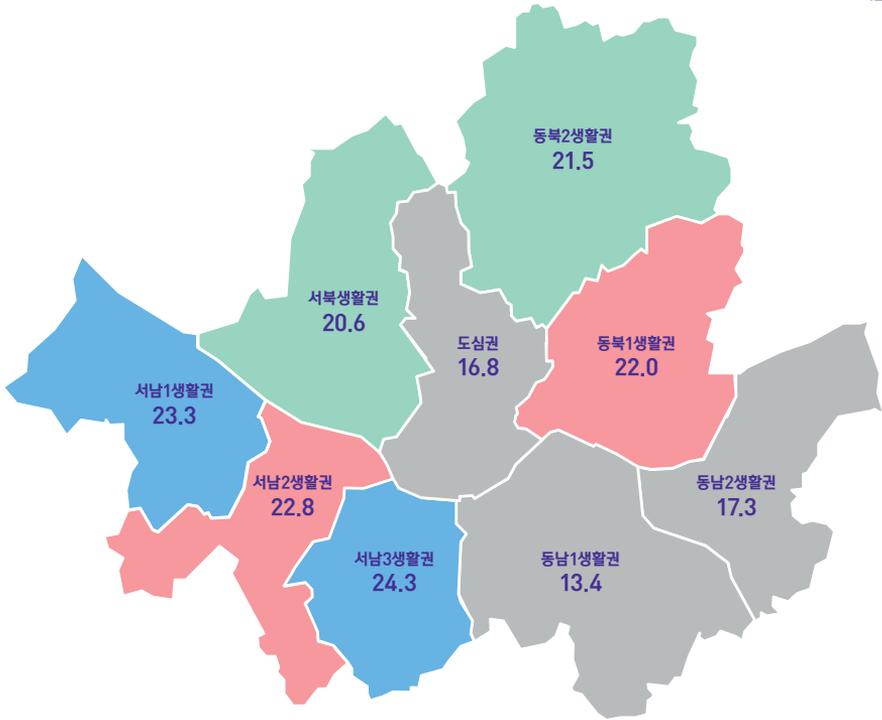
월평균 가구 소득 분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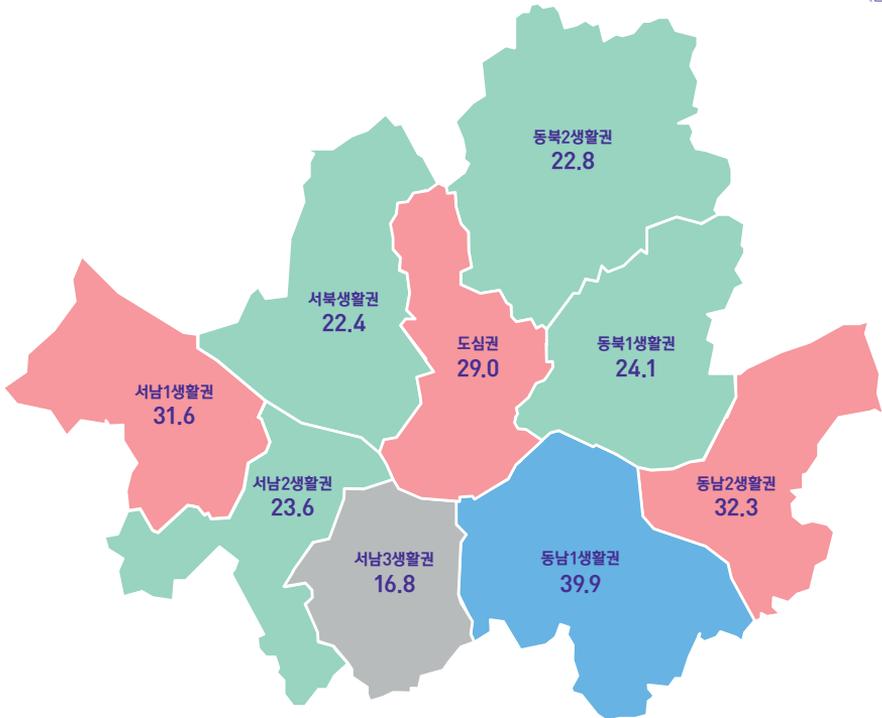
2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중(9대 생활권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5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중(9대 생활권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1990~2017년 결혼한 남녀비율 변화

48.2% 감소

서울의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는 2007년 2.52명에서 2017년 2.34명으로, 지난 10년사이 0.18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평균세대원 수의 감소는 1인가구 증가, 비혼인구와 만혼 증가현상, 저출산 등의 원인에 기인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서울시에서 결혼한 남녀는 총 53,776쌍으로 1990년의 103,843쌍에 비해 무려 48.2%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3세에서 33.4세로 5.1세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5.6세에서 31.2세로 5.6세 증가하였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 기피 및 만혼(晩婚) 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993년 1.558명에서 2017년 0.836명으로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2017

2.34 명



서울 합계출산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

0.836 명



전국 합계출산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

1.052 명



결혼한 남녀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

53,776 쌍



평균 초혼 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

33.4 세 31.2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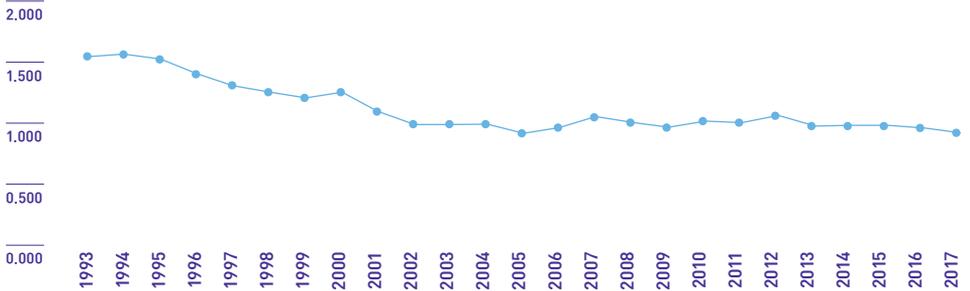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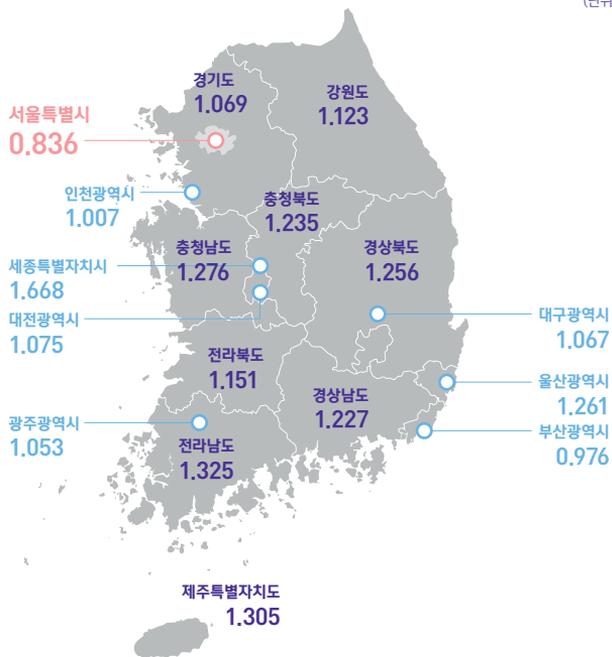
서울 합계출산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전국 합계출산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서울의 1인가구는?

1인가구 비율 변화	
1980년	2017년
4.5%	31.0%

1인가구의 증가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특징짓는 주요요소 중 하나이다. 서울과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지난 30년 사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0년 전체 가구 대비 4.5%에 불과하던 서울의 1인가구는 2017년에 31.0%로, 3가구 중 1가구는 '나 홀로 족'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1인가구 역시 4.8%에서 28.6%로 서울과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소형 가구(1, 2인 가구) 비중은 2045년에 전체 가구의 71.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서울의 가족구조는 지금의 핵가족에서 더욱 분화되어 '나 홀로 족' 또는 '부부 가구'가 대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서울의 1인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31.0%



1~2인가구 2045년 추계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71.2%



1인가구(서울, 전국)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서울의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47.6%	52.4%

2017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의 16.2%가 여성 1인가구이며, 25개 자치구 중 특히 관악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여성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 전체 여성 1인가구의 43.7%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의 여성 1인가구 비율은 52.4%로 남성 1인가구 47.6%에 비해 4.8%p 높게 나타났다. 결혼 기피, 만혼현상 등으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의 여성 1인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16.2%



여성 1인가구 중 20~30대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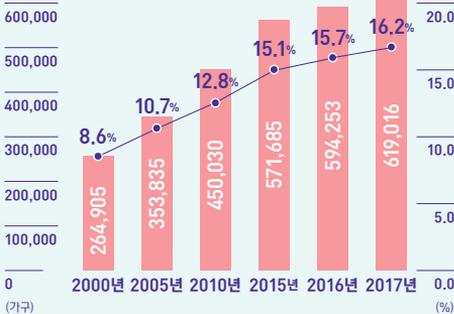
43.7%



전체가구 중 여성 1인가구 규모 및 비중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여성 1인가구수
- 여성 1인가구비율



서울의 1인가구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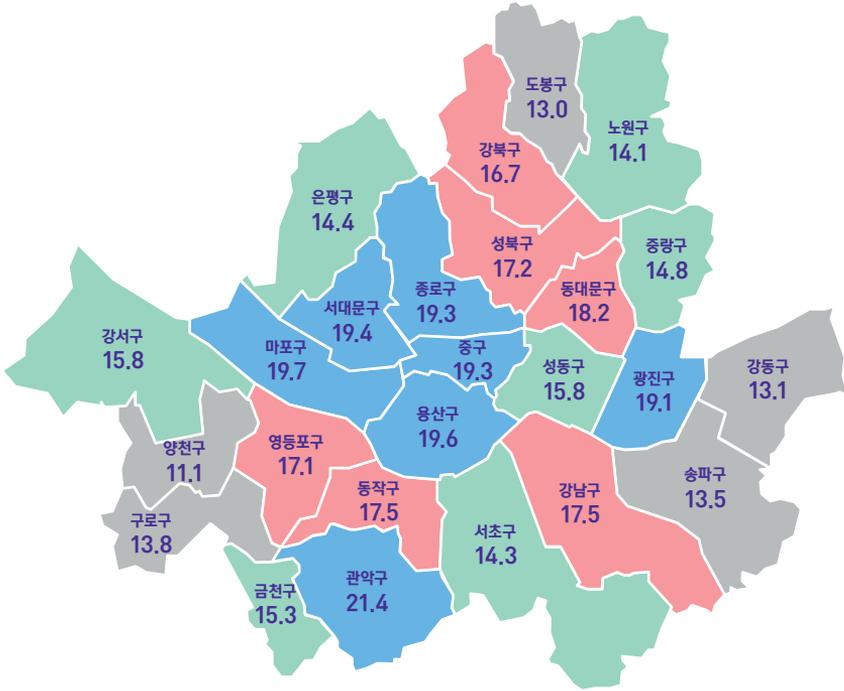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2000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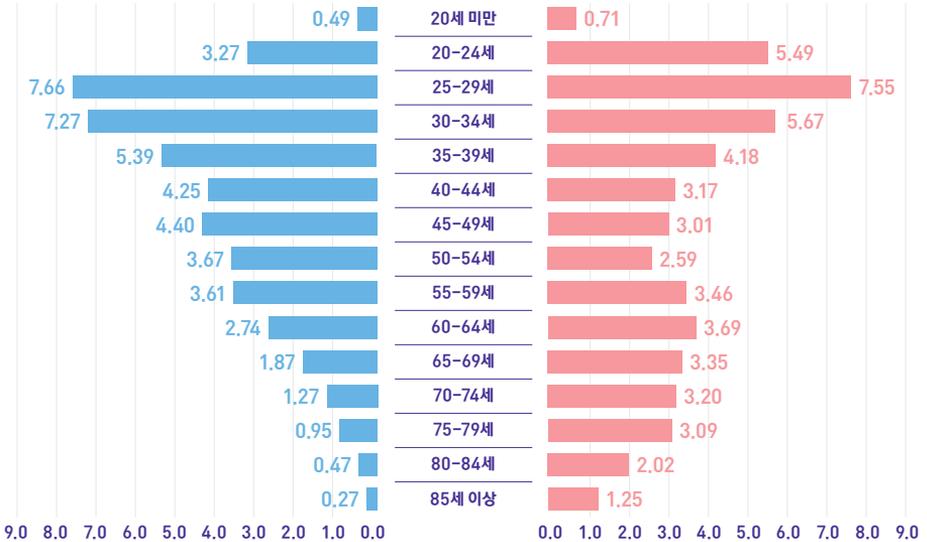
구별 여성 1인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단위: %)



서울의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단위: %)



서울의 고령자(65세이상) 1인가구는?

남성 고령자 1인가구	여성 고령자 1인가구
27.2%	72.8%

2017년 인구센서스 기준 서울시 전체 일반 가구 중 19.1%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이며, 이 중 28.7%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의 고령자 1인가구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서울의 여성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은 72.8%인데 반해 남성 고령자 1인가구는 27.2%에 불과하였다. 25개 자치구 중 중구 34.3%, 노원구 33.4%, 종로구 32.1%, 강북구 32.1% 순으로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초구 21.2%, 송파구 23.5%, 강남구 24.7%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의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비율 (Base : 전체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19.1%



서울의 고령자 1인가구 비율 (Base : 고령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28.7%



서울의 고령자 1인가구 규모 및 비중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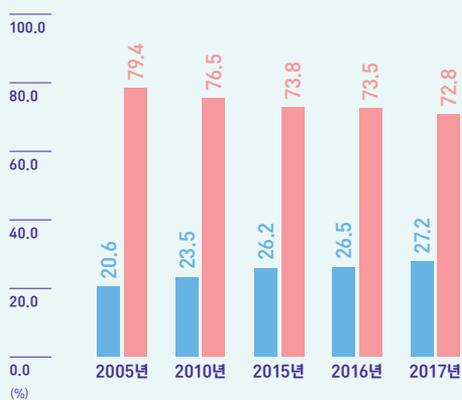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수
-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수
-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 비율 (65세 이상 가구 대비)



서울의 고령자 1인가구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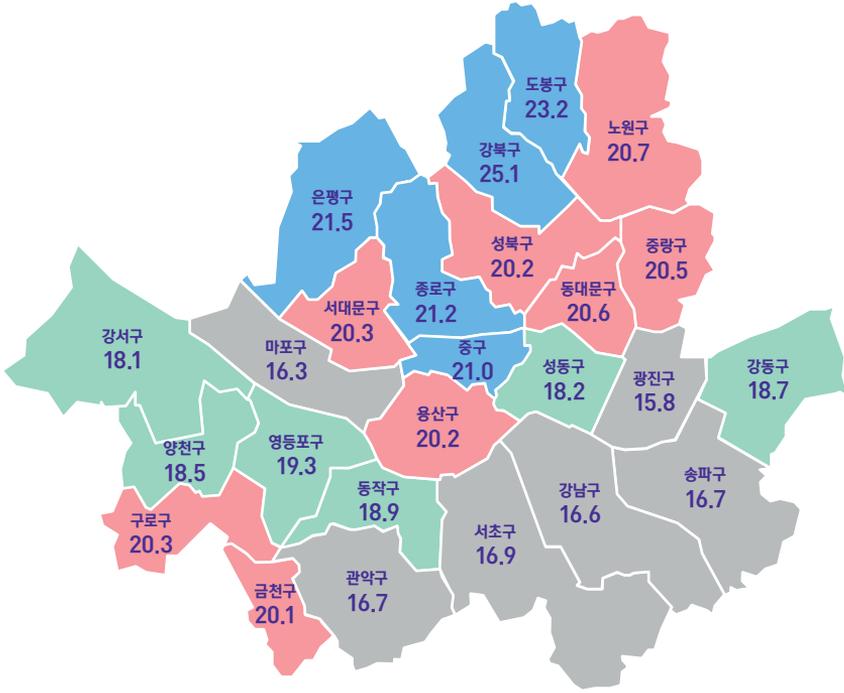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남성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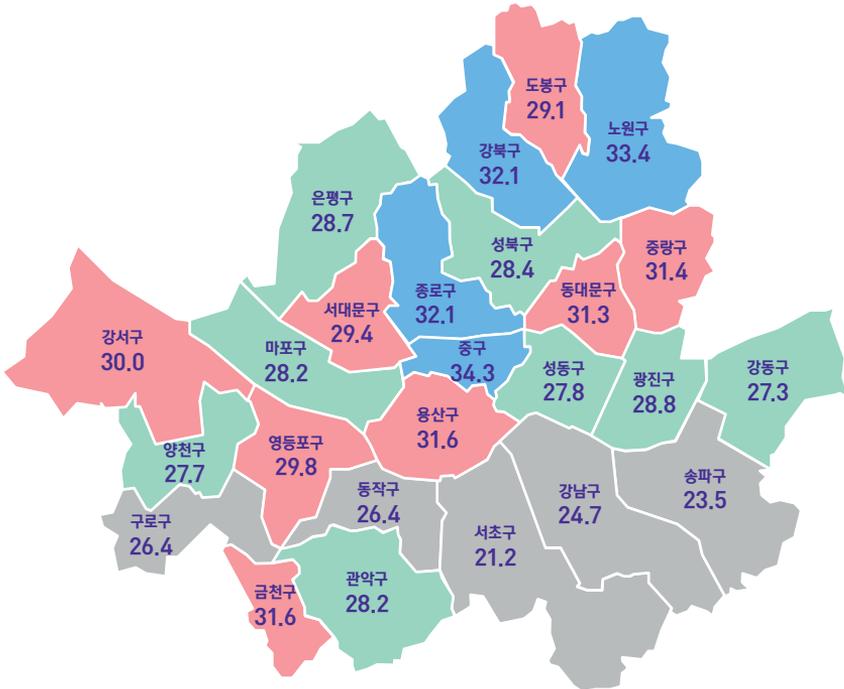
구별 고령자가구 비율 (Base : 전체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단위: %)



구별 고령자 1인가구 비율 (Base : 고령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단위: %)



반려동물은 얼마나 키우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변화	
2013년	2017년
16.7%	19.4%

2017년 서울 가구의 19.4%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16.7%에 비해 2.7%p 증가한 수치이다. 반려동물의 취득경로는 유료입양이 49.0%로 높고(동물판매 업소 24.8%, 유상 입양 24.2%), 무상 입양이 42.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유기동물 입양은 전체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4.1%에 그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18.2%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 보다 60세 이상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가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19.4%



무상 입양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2.6%



유기동물 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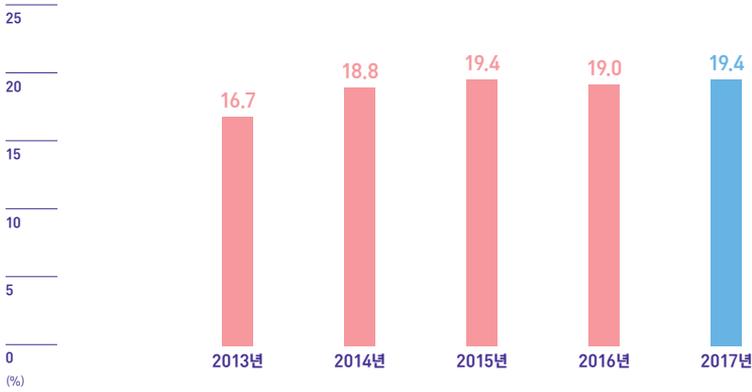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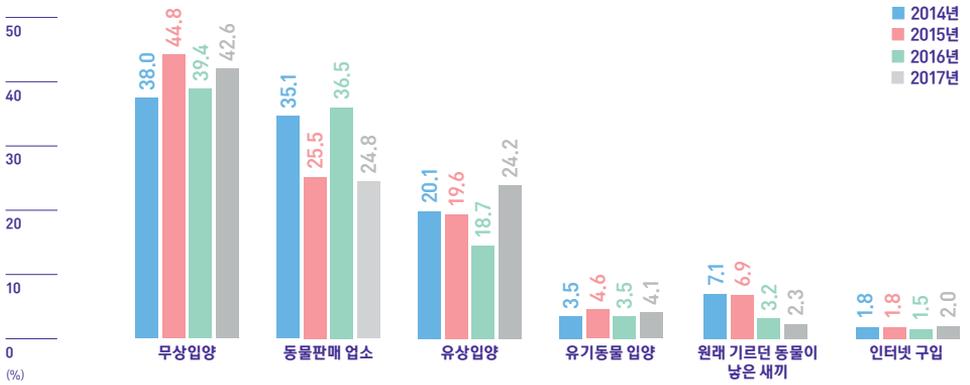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반려동물 취득경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1인가구 연령대별 반려동물 보유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02

보통 사람

People in Seoul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주택 보유현황은?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학력과 직업은?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조사결과에서 가구주 대상 조사는 가구주로,
가구원 대상 조사는 가구원으로 표기하였음.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인구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비율
137만여 명	14.1%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 974만 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한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 137만여 명(남자 655천여 명, 여자 713천여 명)으로 서울 인구의 14.1%로 전국 비중과 유사하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금천구(16.4%), 도봉구(15.9%), 중랑구(15.8%)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14.07%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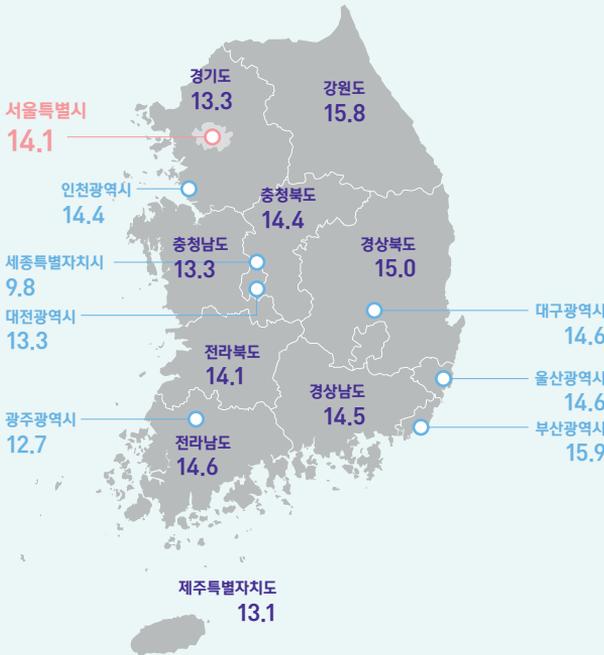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1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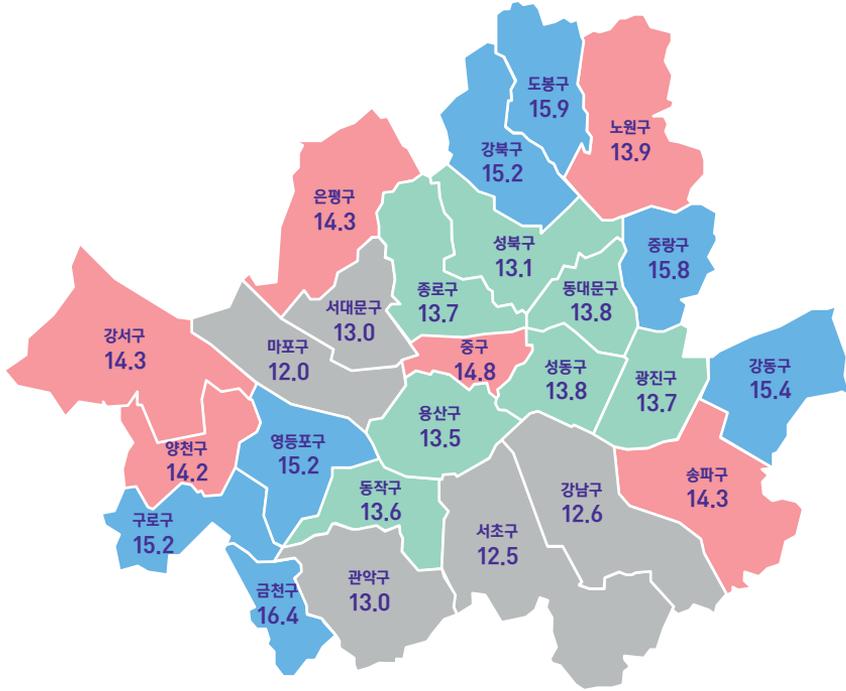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2017 (단위: %)



베이비붐 세대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2017
(단위: %)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2017

- 전체인구
- 베이비부머
- 베이비부머 비율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2017

- 전체인구
- 베이비부머
- 베이비부머 비율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특성은?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	
5인 이상 가구	전년 대비
8.4%	4.8%p 증가

OECD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Fertility rates)은 2016년 1.200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과 저출산 현상은 '인구절벽'이라는 '공포'에 가까운 사회현상이 3~4년 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베이비붐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인해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베이비붐은 단기적으로 큰 규모의 출생아가 인구에 유입되어 인구구조를 젊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 인구고령화 현상을 빠르게 만든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4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베이비 붐 가구의 3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5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2016년 3.6%에서 2017년 8.4%로 전년대비 4.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71.3%는 결혼한 상태 이지만, 이혼 비율 또한 14.6%로 서울시 전체 가구주 이혼율(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4인 이상 가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32.9%



베이비붐 세대 5인 이상 가구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8.4%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기혼자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71.3%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이혼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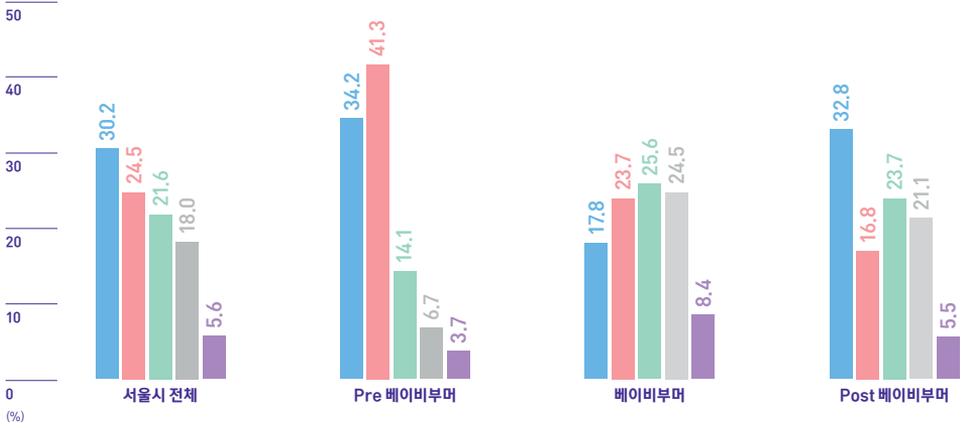
14.6%



가구주 특성별 가구구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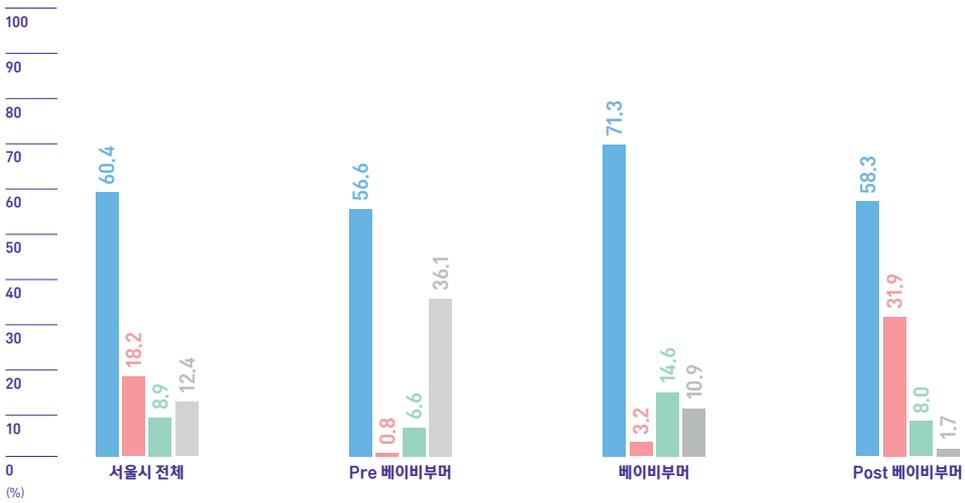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가구



가구주 특성별 결혼상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 기혼
- 미혼
- 이혼
- 사별



Pre 베이비부머 1954년생 이전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Post 베이비부머 1964년생 이후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주택 보유현황은?

주택 자가 소유 비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후 세대
58.7%	28.2%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집 마련’, ‘마이카 시대’의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한 세대이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58.7%로 10가구 중 5~6가구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붐 이후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비율은 28.2%에 그쳐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8.7%



베이비붐 이후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8.2%



주택형태(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Post 베이비부머
단독주택	33.3	33.4	32.5	33.5
아파트	43.1	45.5	45.0	41.3
다세대 주택	12.3	12.3	12.1	12.4
연립주택/빌라	10.4	8.4	10.0	11.5
기타	0.9	0.4	0.4	1.2

주거점유형태(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Post 베이비부머
자가	42.1	59.1	58.7	28.2
전세	26.2	16.2	21.2	32.8
보증금 있는 월세	30.2	22.9	19.2	37.6
보증금 없는 월세	1.0	0.8	0.6	1.2
무상 및 사글세	0.5	0.9	0.3	0.3

가구주 특성별 주택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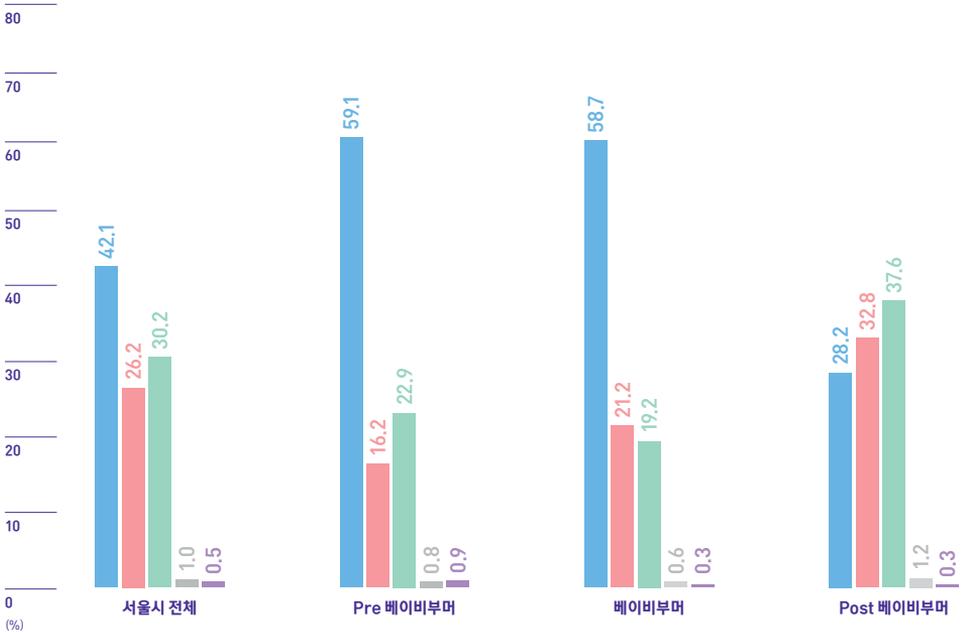
- 단독주택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빌라
- 기타



가구주 특성별 주거점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사글세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학력과 직업은?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 비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후 세대
23.6%	53.5%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열망이 강한 세대이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10명 중 3~4명인 38.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전문대졸 이상 12.5%)에 비해 고학력 계층들이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사회에서 코호트적 특성을 보여주는 세대이지만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출생 코호트별로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1955년생의 전문대이상 비율은 30.0%에 그치지만 1963년생의 경우 46.5%까지 높아져 젊은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가구주의 직업 선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51.9%가 블루칼라(화이트칼라 14.6%)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가구주의 24.4%가 블루칼라(화이트칼라 1.9%)에 종사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가구주의 41.9%가 화이트칼라(블루칼라 34.2%)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대이상 학력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38.0%



블루칼라의 비중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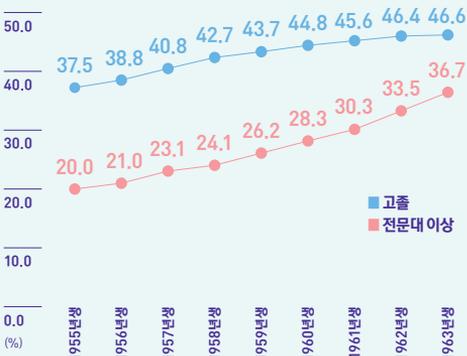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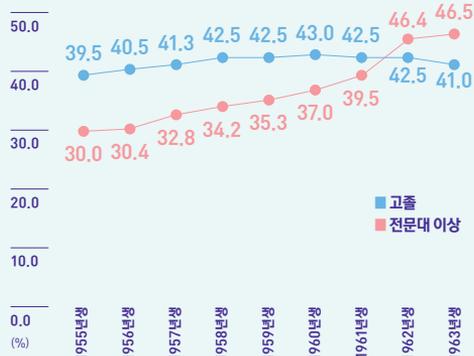
출생연도별 고졸 및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내국인)

전국



서울



가구주 특성별 학력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

- 고졸이하
- 전문대 이상



가구주 특성별 직업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

- 관리전문직
- 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 기타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주택으로 인한 부채 비율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전국
50.1%	54.1%

2017년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54~62세)의 가구부채 비율은 50.1%로 나타났으며, 가구 부채의 가장 큰 이유는 거주 주택 마련(19.4%)이다.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54.9%가 자가 소유자였으며, 부채가 있는 post 베이비부머의 30.9%가 자가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에 따르면(잠정치), 전체 담보 대출 용도별 중에서 '거주 주택 또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이 54.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 임차 및 구매로 인해 금융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가구주의 부채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0.1%



부채 있는 베이비붐 가구주 중 자가소유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4.9%



베이비붐 가구 부채 이유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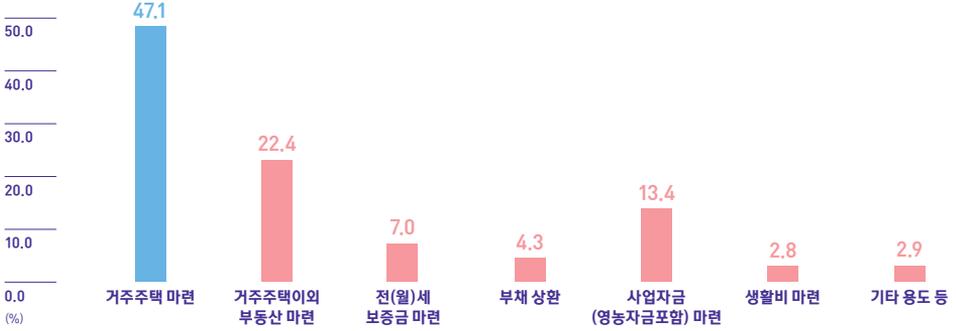
부채가 있는 가구주의 주거점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Post 베이비부머	30.9%	36.5%	31.6%	0.7%	0.3%
베이비부머	54.9%	23.0%	21.6%	0.4%	0.1%
Pre 베이비부머	51.9%	17.0%	29.8%	0.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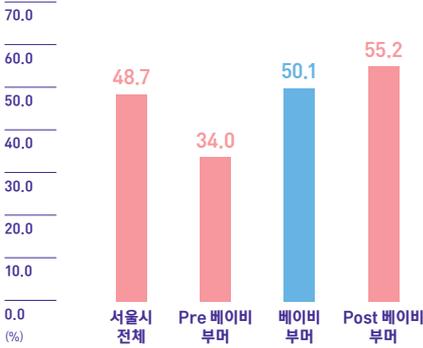
전국 가구주 대출 용도별 비중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잠정치)
(단위: %)



가구주 특성별 부채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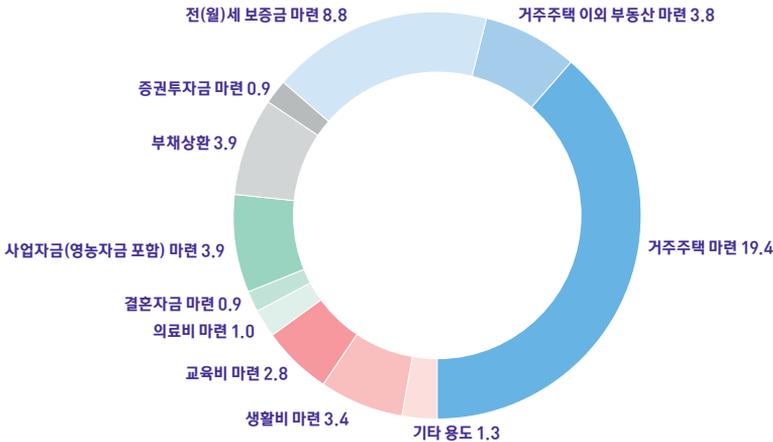
베이비부머 중 부채 있는 사람들의 집 소유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베이비부머의 부채 이유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2026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 은퇴 후 삶을 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은퇴에 임박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생활비로 200~2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33.6%)고 생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여전히 노동 의지가 있고 좋은 인적 자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사회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적정 월생활비(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응답률 33.6%)

200~ 250만원

은퇴 후 적정 월생활비 비율(가구원) : 150~2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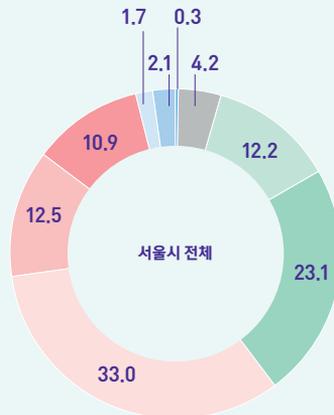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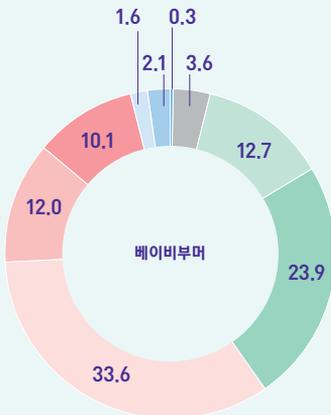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은퇴 후 적정 월생활비(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미만
- 100~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250만원 미만
- 250~300만원 미만
- 300~350만원 미만
- 350~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은?

청년층 직업분포	
사무직	46.9%
서비스	11.6%
판매업	9.5%

서울의 청년층(25~34세)은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으로 미래 서울의 성장주역이다. 이들 세대는 서울 전체 인구의 17.9%에 달한다. 청년층의 직업분포를 보면 화이트칼라가 46.9%, 블루칼라 23.3%, 관리전문직 5.8%로 나타났다. 사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인 청년층의 경제 기반은 약하다. 가구원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월세의 비율이 64.9%로 청년층 10명 중 6~7명이 전·월세에 살고 있다.

청년층 비율 (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17.9%



청년층 사무직 종사 비율(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6.9%



청년층 전·월세의 비율(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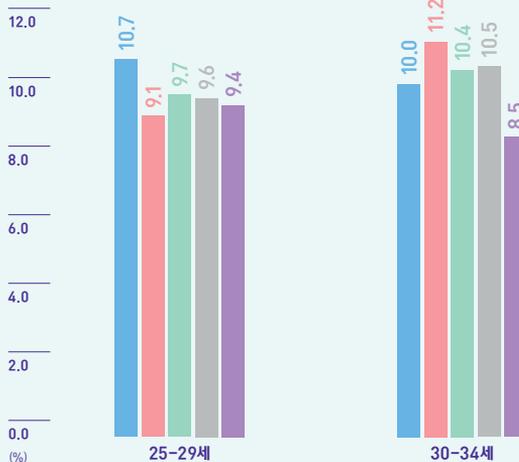
64.9%



서울의 청년층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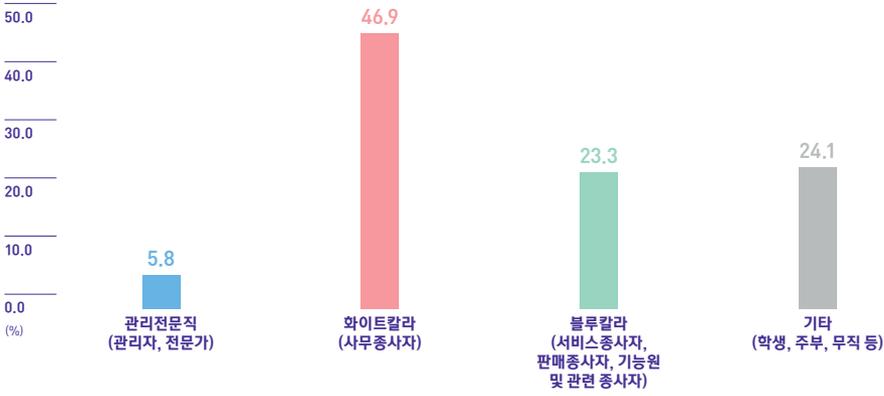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 2009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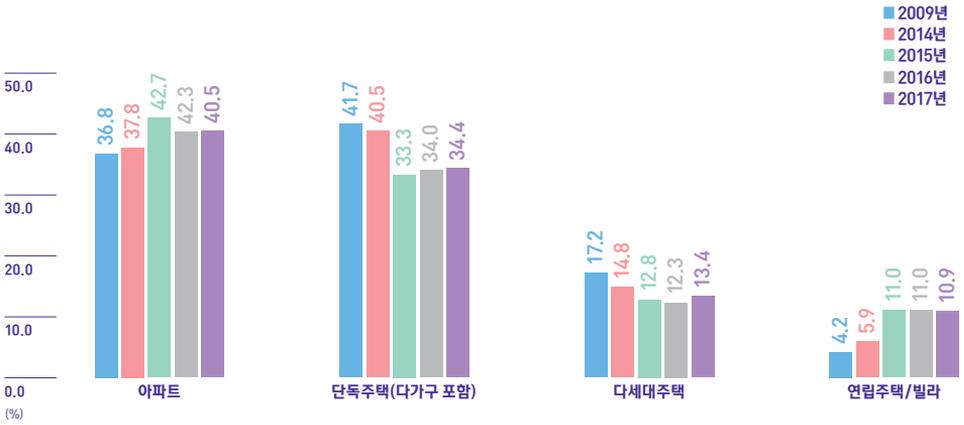
청년층의 직업 특성(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청년층의 주거 특성(가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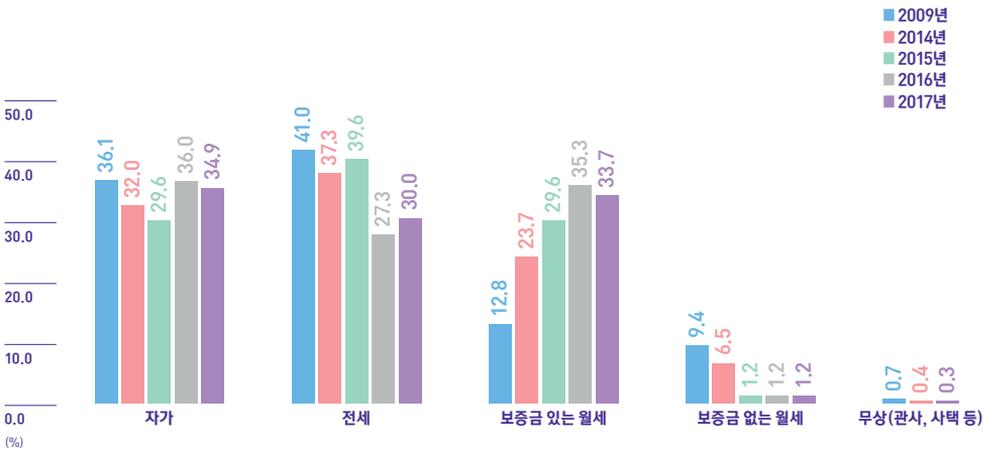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기타(오피스텔, 삼가내 거처 등) 제외

청년층의 주거점유 형태(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미혼 청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미혼 청년층의 가구구성	
1인가구	33.7%
2인가구	10.8%
3인 이상 가구	55.5%

2015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미혼 청년층은 전체 청년층의 71.6%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2017년 서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3.4세, 31.2세로 2000년의 29.7세, 27.3세에 비해 4세 정도 높아졌다. 서울의 미혼 청년층의 55.5%는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44.5%는 1~2인가구 형태였다. 서울의 청년 10명 중 5~6명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층의 미혼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 (15세 이상, 내국인), 5년 주기

71.6%



미혼 청년층의 1~2인가구 비율(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4.5%



미혼 청년층의 3인 이상 가구 비율(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5.5%



서울의 평균 초혼 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33.4 세 31.2 세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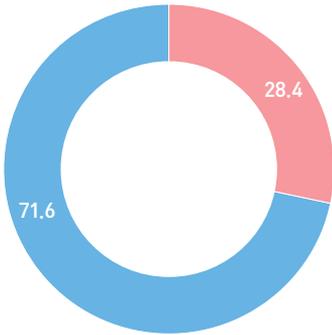


여성

미혼 청년층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 (15세 이상, 내국인), 5년 주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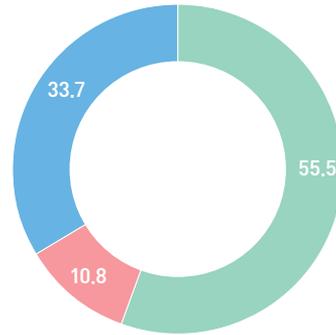
- 미혼
- 기혼



미혼 청년층의 가구구성(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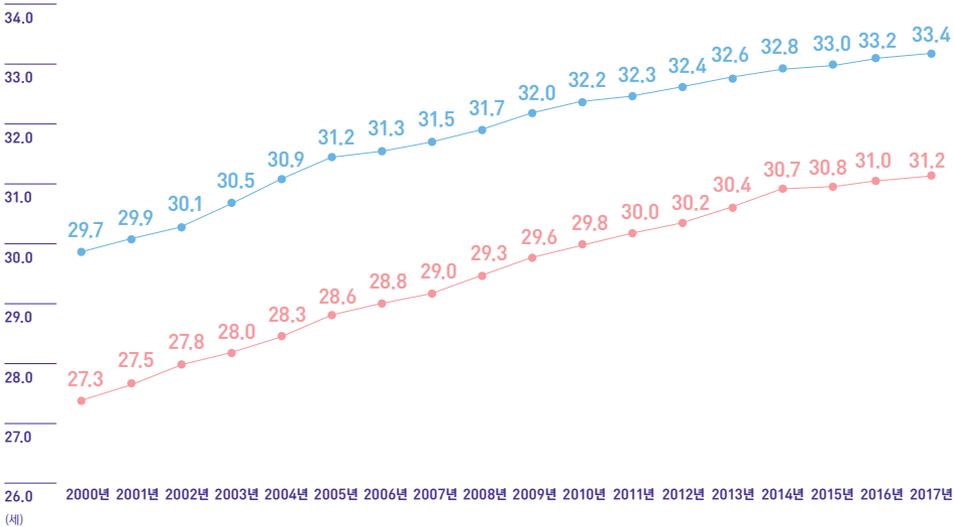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 이상가구



서울의 평균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 남성
- 여성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동창 모임	자원봉사 참여율
56.4%	10.1%

결혼을 미룬 채 갱겨루 족 생활을 하는 서울의 많은 청년층은 개인 중심적 생활습관에 익숙하다. 2017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청년층의 21.2%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년 10명 중 적어도 2명은 아무런 사회 활동이나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한 셈이다. 서울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 활동은 전체 응답자의 56.4%(중복응답)를 차지한 동창 모임이었다. 학연 중심의 사회 모임이 이들이 가진 사회 자본의 가장 큰 원천임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친목회가 26.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청년층은 자원봉사와 같은 공적인 사회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인데, 2017년 기준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0.1%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사회활동 미참여 비율(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1.2%



청년층의 모임단체활동(가구원) : 동창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6.4%



청년층의 모임단체활동(가구원) : 친목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6.0%



청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율(가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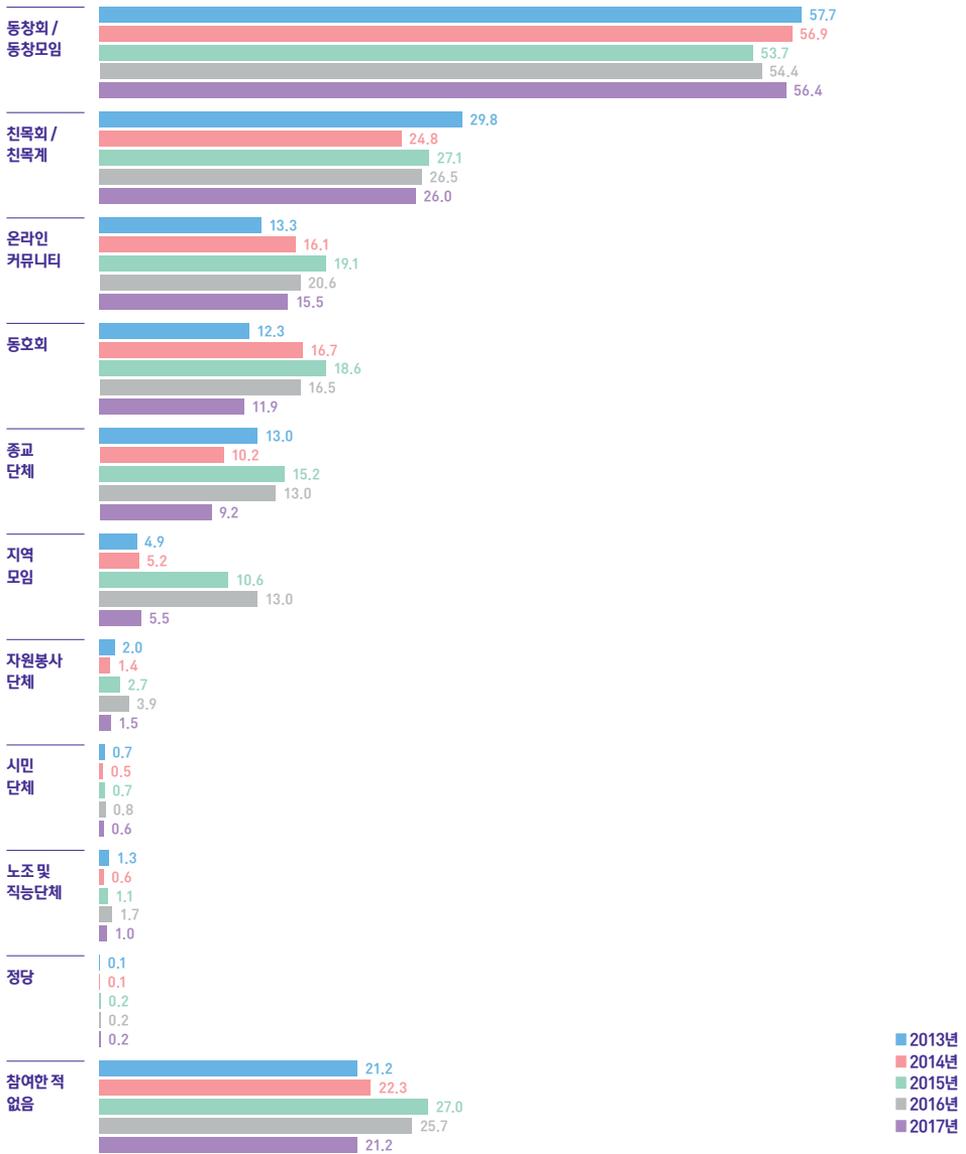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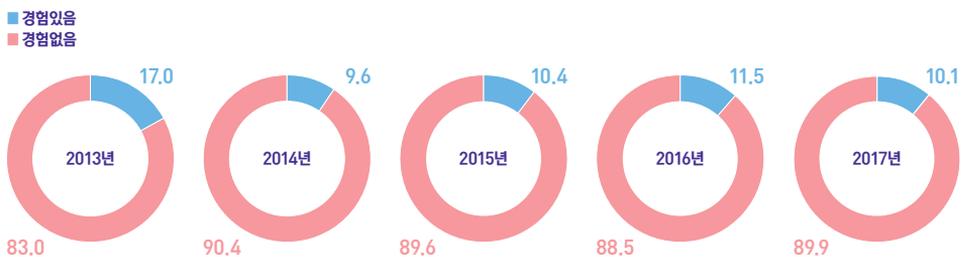
청년층의 사회 연결망(가구원, 중복응답)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청년층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단위: %)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서울은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0%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3.5%에 도달하였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14.5%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섰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20.4%로 다시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 초고령사회가 된 미래 서울에서(2026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 즉 노년부양비는 29.6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 9.2명에 비해 무려 3배이상 증가할 수치이다.

고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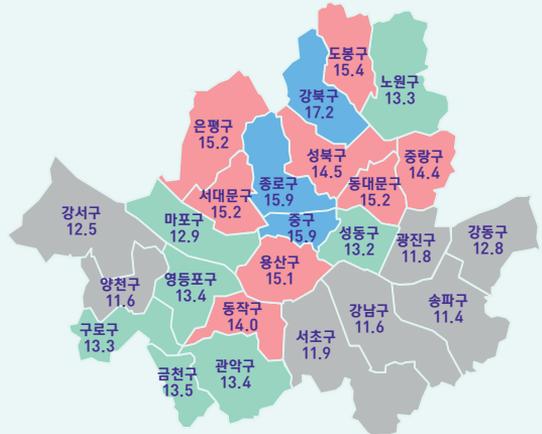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2017

13.5%



구별 고령인구 비율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2017



고령인구 비율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추계기준)



II.

서울의 사회생활

Everyday Life in Seoul



1. 생활만족도

경제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2. 생활환경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은?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No₂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01

생활만족도

Life Satisfaction



경제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경제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경제환경만족도가 높은 지역	
동남1생활권	5.62점
동남2생활권	5.57점
서남3생활권	5.54점

서울 가구주의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의 경제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5.35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9대 생활권별 경제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남 1생활권이 5.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남2생활권, 서남3생활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 가구주의 경제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5.35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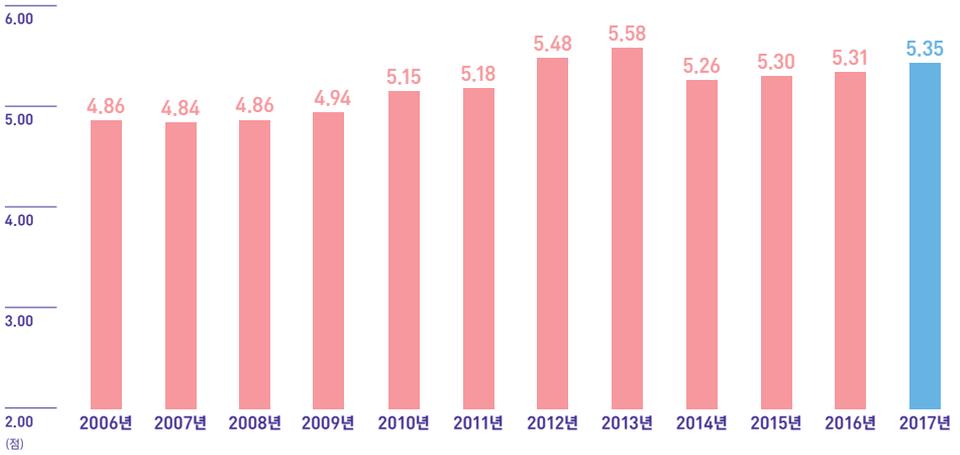
서울 가구주 소득별 경제활동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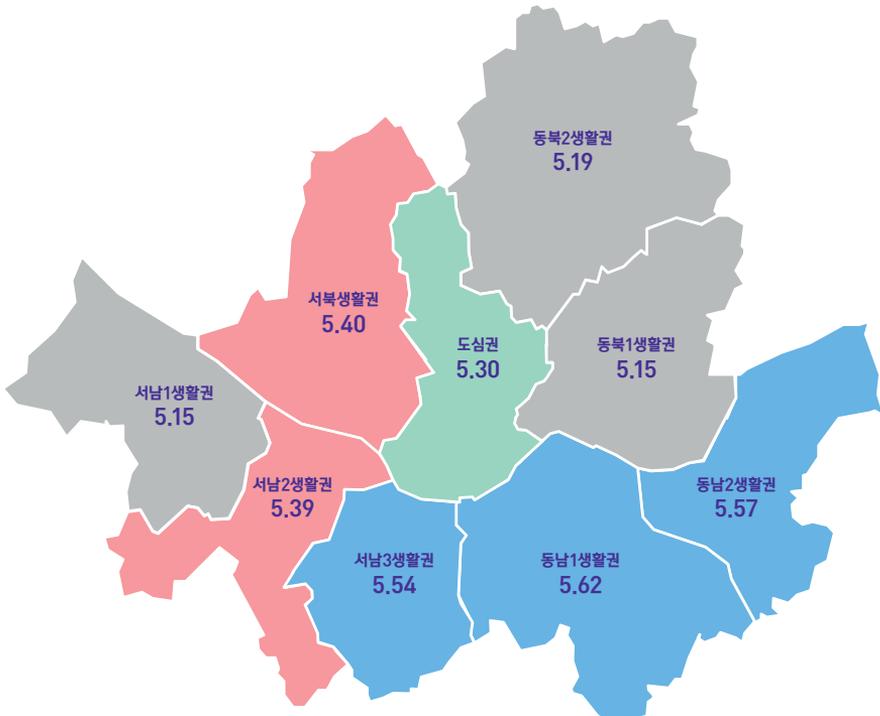
서울 가구주의 경제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가구주의 경제환경 만족도(9대 생활권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은 지역	
동남1생활권	6.49점
서남3생활권	6.39점
동남2생활권	6.24점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가구주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에 6.19점으로 나타났
다. 지난 10년간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9대 생활권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살
펴보면, 동남1생활권이 6.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남3생활권, 동남2생활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가구주의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6.19 점



동남1생활권의 주거환경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6.49 점



연령별 주거환경 만족도(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주거환경 만족도(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가구주의 주거환경 만족도(9대 생활권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지역	
양천구	6.68점
송파구	6.68점
종로구	6.61점
도봉구	6.60점

서울시민들의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6.29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인 건강상태, 가정생활, 친지/친구관계, 사회생활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 재정상태 만족도 점수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양천구(6.68점), 송파구(6.68점), 종로구(6.61점), 도봉구(6.60점)이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광진구(5.85점), 동대문구(5.86점), 노원구(5.91점)이다.

서울 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6.29 점



연도별/영역별 만족도(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05년	6.60	5.11	6.71	6.86	6.44
2006년	6.63	5.21	6.75	6.85	6.54
2007년	6.72	5.38	6.74	6.82	6.50
2008년	6.88	5.55	6.73	6.81	6.57
2009년	6.88	5.65	6.75	6.82	6.60
2010년	6.88	5.88	6.75	6.80	6.64
2011년	6.90	5.90	6.82	6.89	6.73
2012년	7.06	6.05	6.90	6.99	6.84
2013년	7.15	6.23	6.95	7.03	6.94
2014년	7.16	6.21	7.08	7.14	7.01
2015년	7.18	6.28	7.09	7.16	7.04
2016년	7.20	6.29	7.11	7.18	7.05
2017년	7.19	6.29	7.10	7.19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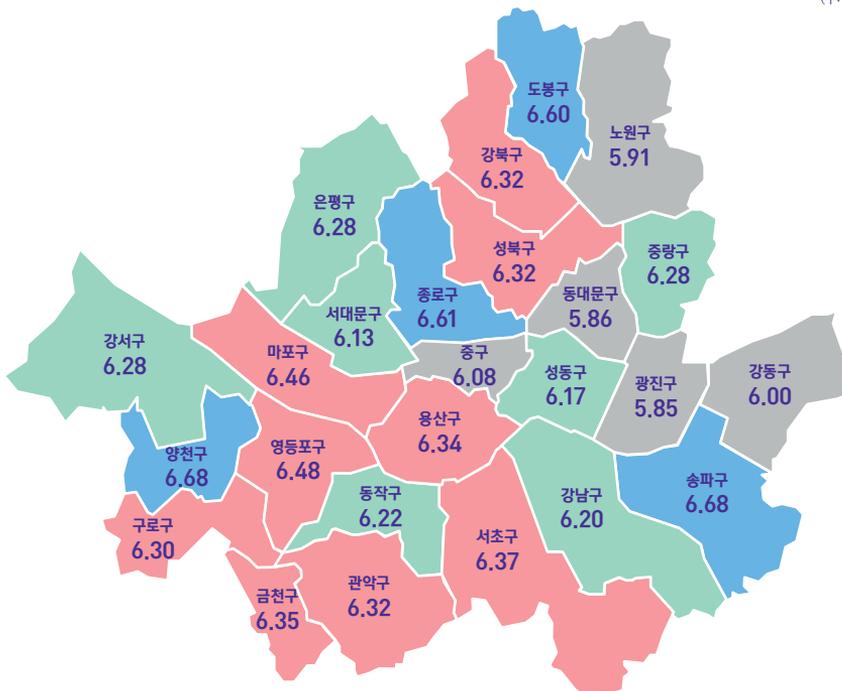
연도별 재정상태 만족도(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구별 재정상태 만족도(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청소년 범죄	
2000년	33,288건
2017년	12,265건
	63.2% 감소

2017년 서울의 강력 범죄 사건(살인, 강도) 발생건수는 총 311건으로, 이 중 살인이 142건, 강도가 169건이었다. 지난 15년간 서울의 강력 범죄 사건은 2009년의 반등을 제외하면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의 발생 추이 역시 두 차례의 반등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던 청소년 범죄는 2007년과 2012년에 두 차례 반등하였다가, 2017년에는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총 12,265건으로 2000년의 33,288건에 비해 63.2% 감소하였다.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현대사회 위험요인 정도는 '핵폐기물 방사능사고'(6.34점), '폭력범죄'(6.34점), '실업' (6.25점), '전염병'(6.23점), '경제 위기'(6.20점), '안전사고'(6.1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강력 범죄 사건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2017

311 건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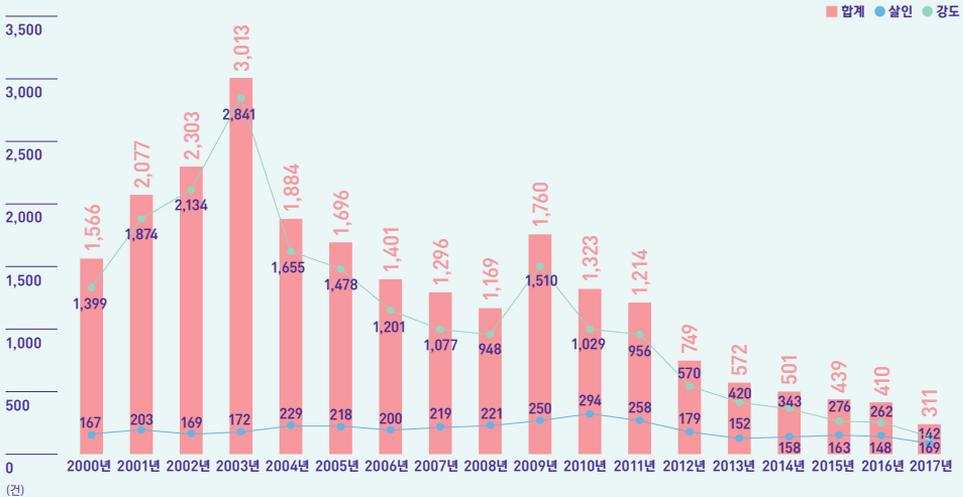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소년범죄 발생현황, 2017

12,265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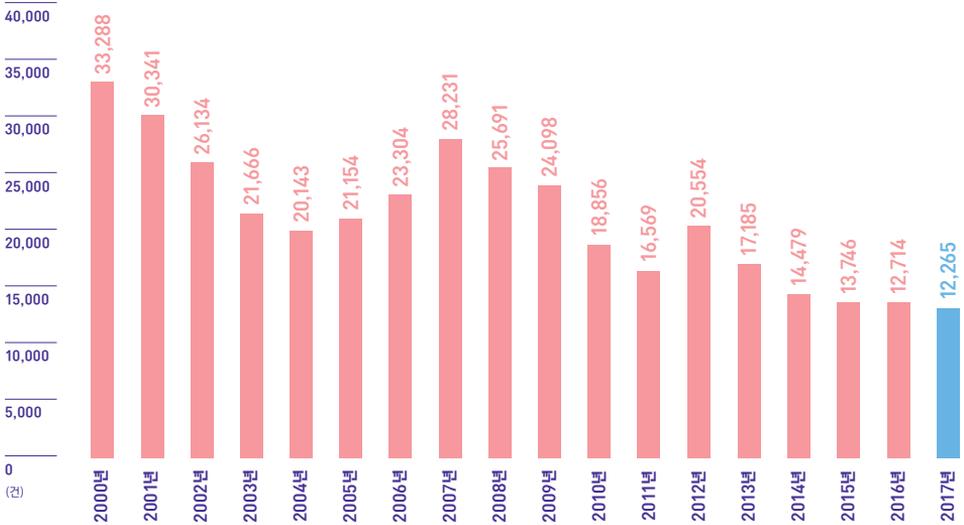
연도별 강력 범죄 발생건수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소년범죄 발생현황, 각년도



주: 개정 소년법 시행(08.6.22)으로 2008년부터는 소년범 연령을 10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 적용
 ※ 2010년부터 특별법범주에 속해 있던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폭력 부분이 강력법으로 변경

도시위험 심각성(가구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02

생활환경

Living Conditions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은?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NO₂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여성
72.9%	54.0%

2017년 만 15세 이상 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한 인구는 총 2,408천명(54.0%)으로, 2000년의 2,010천명(48.8%)에 비해 5.2%p 증가하였다.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나, 남녀간 격차는 아직은 크다. 2000년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5.8%p였는데 (남성 74.6%, 여성 48.8%), 2017년 기준 남녀격차는 18.9%p로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2,408

천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54.0

 %

경제활동 참가 남녀격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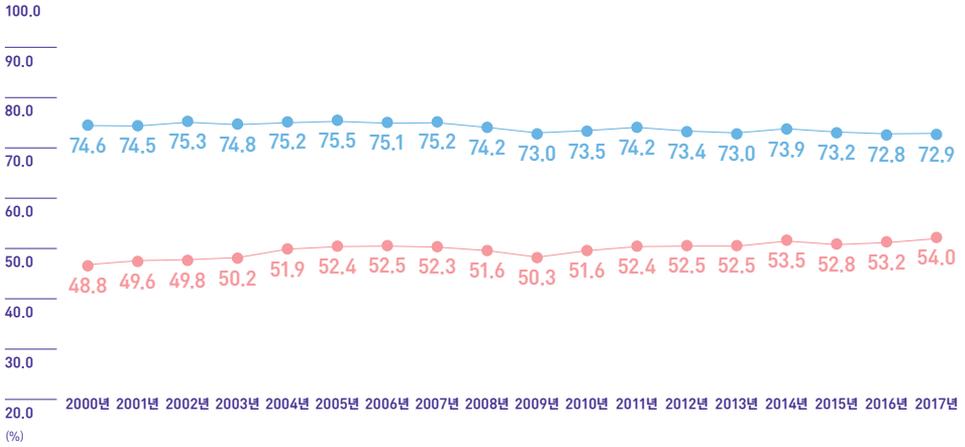
18.9

 %p

서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남성
 ● 여성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서울의 성별 고용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남성
 ■ 여성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서울시민들은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주로 살고 싶어할까? 서울시민의 62.9%는 10년 후에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에 기반한다면 서울의 주택유형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아파트가 대세가 될 것이다. 서울 가구의 연령별 아파트 거주 희망을 살펴보면, 30대(76.4%)와 40대(71.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도 아파트 거주 희망이 50.8% (2016년에는 37.9%가 아파트 거주 희망)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희망 주거 형태(가구주) : 아파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62.9%



희망 주거 형태(가구주) :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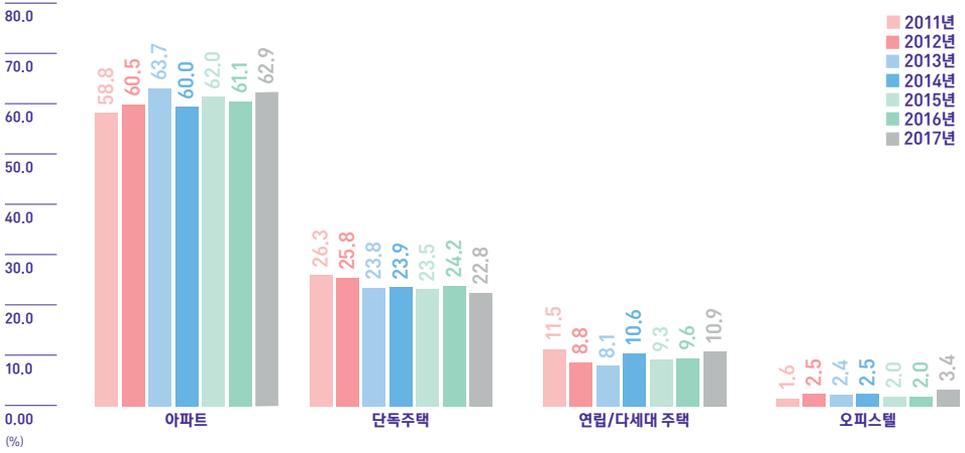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2.8%



미래 희망 주택 형태(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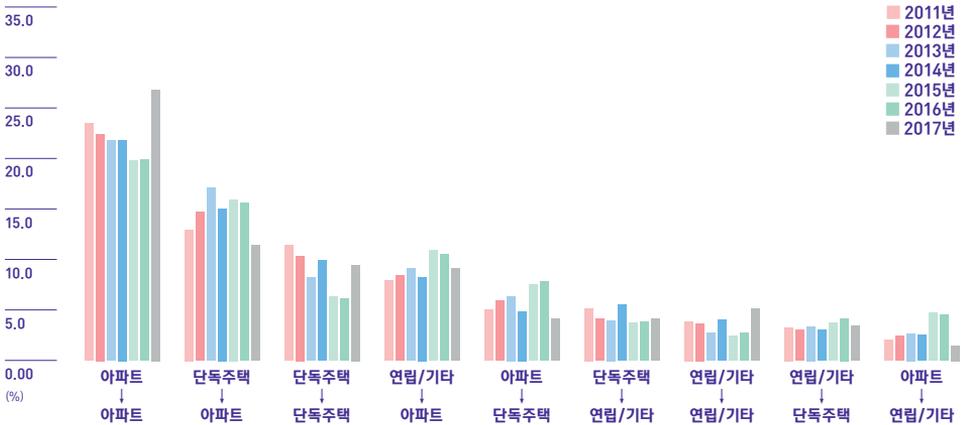


연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2011년	58.8	26.3	11.5	1.6
2012년	60.5	25.8	8.8	2.5
2013년	63.7	23.8	8.1	2.4
2014년	60.0	23.9	10.6	2.5
2015년	62.0	23.5	9.3	2.0
2016년	61.1	24.2	9.6	2.0
2017년	62.9	22.8	10.9	3.4

*기타 제외

현재 대비 미래 희망 주택 형태 추이 (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도	아파트	단독주택	단독주택	연립/기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기타	연립/기타	단독주택	아파트
2011년	31.2	17.2	15.2	10.5	6.7	6.9	5.2	4.4	2.7	
2012년	29.8	19.5	13.8	11.2	7.9	5.5	4.9	4.1	3.3	
2013년	28.9	22.7	10.9	12.1	8.5	5.3	3.7	4.5	3.6	
2014년	29.0	20.0	13.2	11.0	6.5	7.4	5.4	4.1	3.4	
2015년	26.3	21.2	8.4	14.5	10.0	5.0	3.3	5.0	6.3	
2016년	26.4	20.7	8.2	14.0	10.4	5.1	3.7	5.6	6.0	
2017년	35.6	15.2	12.6	12.1	5.5	5.5	6.8	4.6	2.0	

서울시민의 이사계획은?

서울시민들 중 향후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전체의 25.4%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동북권이 2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 이외지역은 18.7%로 나타나, 대부분의 서울시민은 서울 내에서의 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사 시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47.1%로 전세(44.1%)보다 다소 높았다. 30대 가구주의 현재 주거점유형태는 다른 연령에 비해 월세 비중(43.5%)이 높게 나타났는데, 43.4%가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남권(25.4%) 지역과, 전세(55.4%)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사계획 있다’의 비율(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5.4%



이사 시 주택점유형태(가구주) : 자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7.1%



이사계획 지역(가구주) : 동북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2.8%



이사계획 있음 비율(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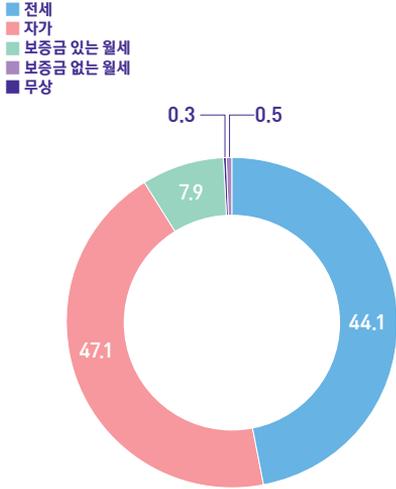
이사계획 지역(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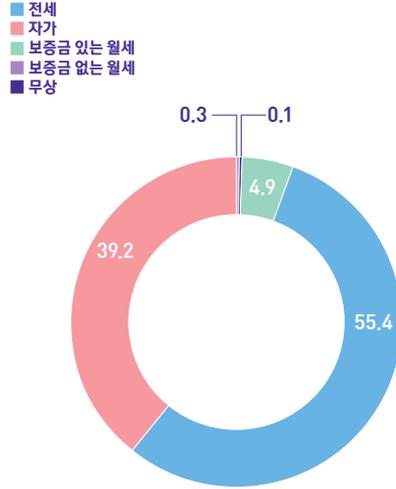
이사시 주거점유형태(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30대 가구주의 이사시 주거점유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연령별 이사계획(가구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이사계획 있다 비율	
	2016년	2017년
30대	41.0	43.4
40대	28.7	28.0
50대	20.1	19.7
60세 이상	15.7	11.7

30대 가구주의 이사계획지역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30대		서울시 전체 (2017)
	2016년	2017년	
도심권	4.3	8.9	7.3
동북권	21.2	20.9	22.8
서북권	14.9	13.1	10.9
서남권	31.8	25.4	22.1
동남권	20.0	19.4	18.3
서울 이외 수도권	7.0	9.5	13.8
그 외 지역	0.8	2.7	4.9
합계	100.0	100.0	100.0

서울시민의 통근과 통학은?

2017년 서울시민의 71.8%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통근·통학의 비율을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대의 91.8%, 30대의 78.5%, 40대의 78.0%, 50대의 72.9%가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근·통학 지역은 '다른 구'가 41.6%로 가장 많았고,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이 31.4%였다. 통근·통학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인 4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비율도 15.5%로 나타났다.

통근·통학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71.8%



통근·통학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 : 30분~1시간 미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3.9%



통근·통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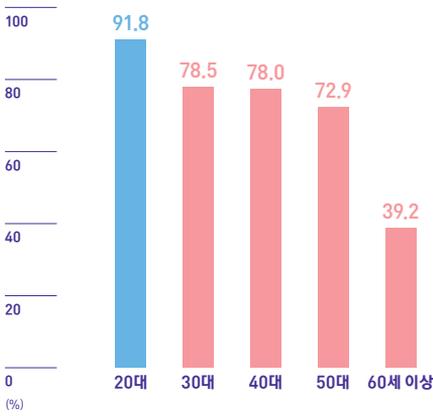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 통근
- 통학
- 통근·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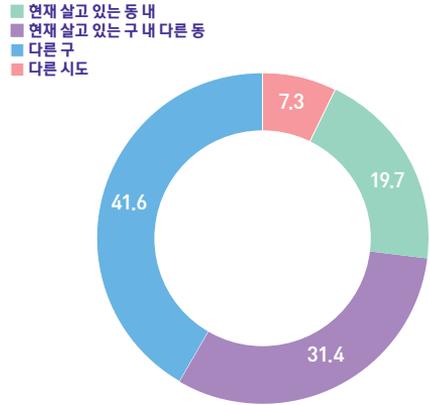
연령별 통근·통학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통근·통학 지역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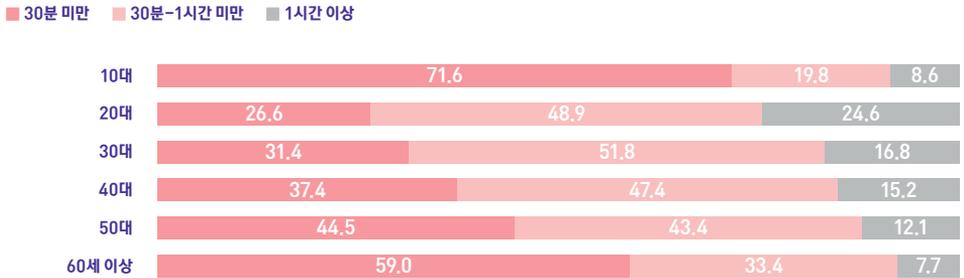
출퇴근시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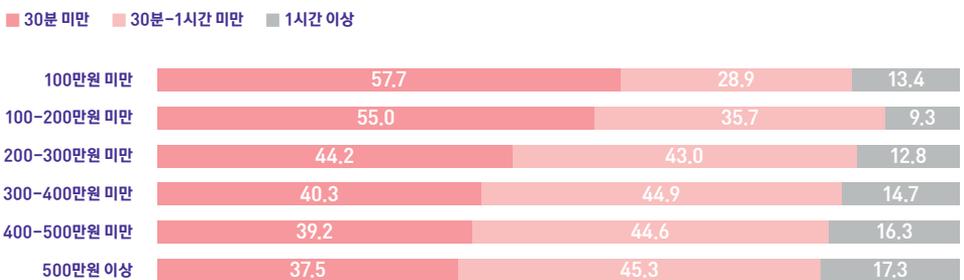
연령별 출퇴근시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소득별 출퇴근시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화재발생건이 높은 지역	
강남구	502건
강서구	364건
송파구	318건

서울의 화재 사고는 2001년 7,379건을 정점으로 2006년까지 4,907건으로 줄어들다가 2007년 6,698건으로 갑작스러운 반등을 하였다. 이후 감소를 보이던 서울시 화재발생 건수는 2016년 6,443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5,978건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한해 동안 지역적으로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총 502건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 강서구 364건, 송파구 318건으로 높았다. 반면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은평구로 2017년 한 해 15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화재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화재발생 피해액은 증가하였다. 2016년 화재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6,443건에 141억 5,449만원으로 건당 약 220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5,978건에 153억 2,389만원으로 건당 약 256만원 정도의 피해액을 보였다.

서울의 화재발생 건수

출처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2017

5,978 건



화재발생 피해액

출처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2017

153억 2,389 만원



화재발생 건수총계와 피해액 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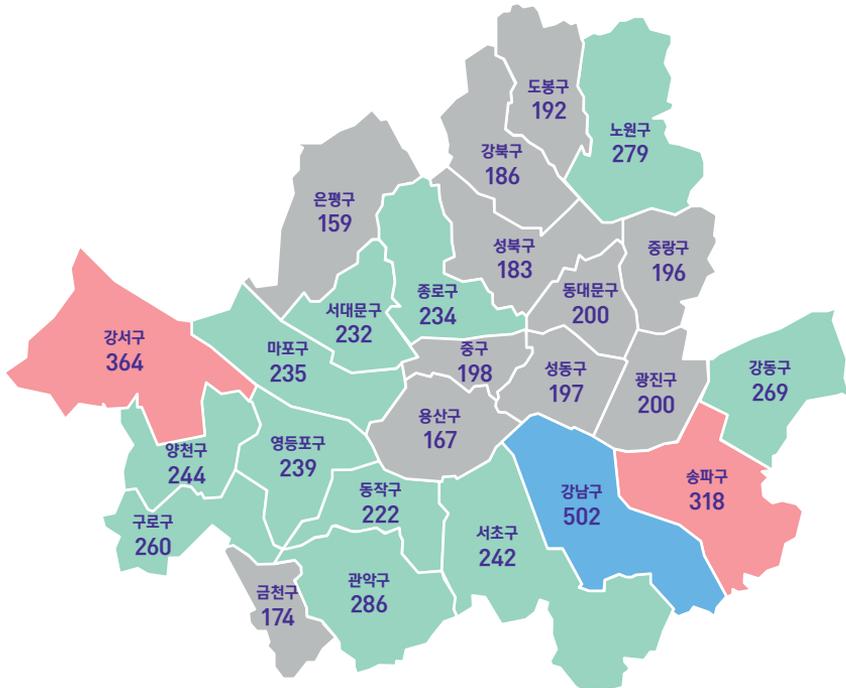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 화재 발생 건수
- 동산 피해액
- 부동산 피해액



구별 화재발생건수

출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통계, 2017 (단위: 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PM10)는 2002년 76 $\mu\text{g}/\text{m}^3$ 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2년 41 $\mu\text{g}/\text{m}^3$ 까지 떨어졌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4 $\mu\text{g}/\text{m}^3$ 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줄곧 PM10 환경기준인 50 $\mu\text{g}/\text{m}^3$ 이하에 머물고 있다. 반면, 2017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25 $\mu\text{g}/\text{m}^3$ 으로 환경기준인 25 $\mu\text{g}/\text{m}^3$ 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2017

44 $\mu\text{g}/\text{m}^3$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2017

25 $\mu\text{g}/\text{m}^3$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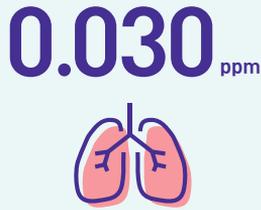


서울의 NO₂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화석 연료의 연소 공정 및 화학 물질 제조 공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오존을 생성하고 일산화질소보다 5~1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같은 중증 호흡기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서울의 연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7~2008년의 0.038ppm을 정점으로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감소하며 2012년에는 최저치인 0.030ppm까지 낮아졌다. 2013~2016년의 경우 0.031~0.033ppm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0.030ppm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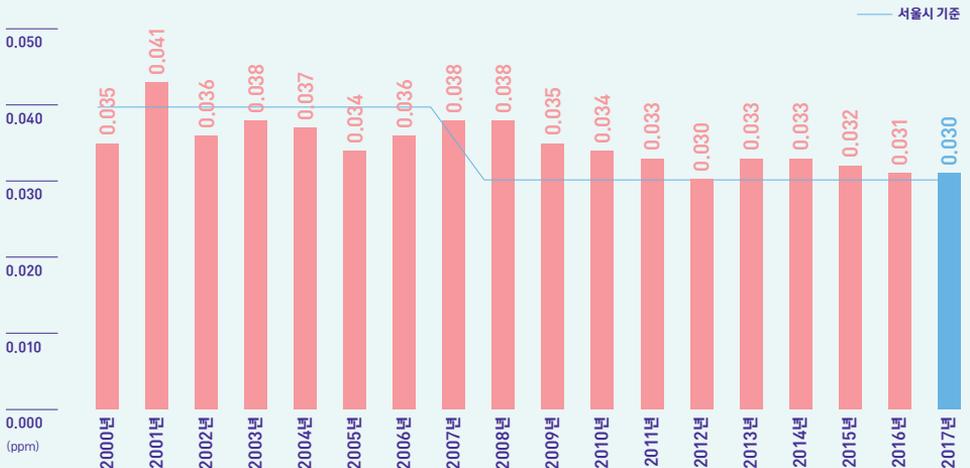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2017



서울의 NO₂ 농도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각년도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미세먼지 농도	
	2014년	2017년
지하도상가	50.6 $\mu\text{g}/\text{m}^3$	33.5 $\mu\text{g}/\text{m}^3$
지하역사 (1~8호선)	86.3 $\mu\text{g}/\text{m}^3$	83.1 $\mu\text{g}/\text{m}^3$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86.3 $\mu\text{g}/\text{m}^3$ 에서 2017년 83.1 $\mu\text{g}/\text{m}^3$ 로 낮아졌다. 역사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호선이 91.4 $\mu\text{g}/\text{m}^3$ 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호선이 90.3 $\mu\text{g}/\text{m}^3$, 2호선이 87.0 $\mu\text{g}/\text{m}^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5호선이 75.8 $\mu\text{g}/\text{m}^3$, 6호선이 78.0 $\mu\text{g}/\text{m}^3$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지하시설 미세먼지 안전 기준은 140 $\mu\text{g}/\text{m}^3$ 로, 서울시 지하역사들은 모두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2006년 64.3 $\mu\text{g}/\text{m}^3$ 에서 2017년 33.5 $\mu\text{g}/\text{m}^3$ 으로 47.9% 감소했다.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지하역사(1~8호선)

출처 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1~8호선), 2017

83.1 $\mu\text{g}/\text{m}^3$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지하도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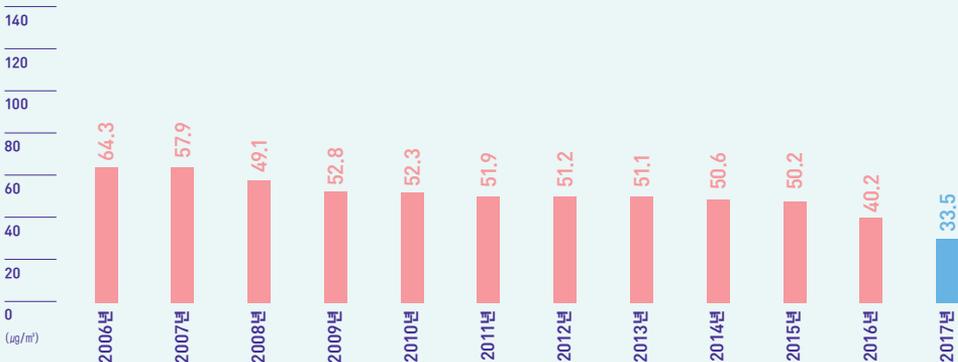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결과, 2017

33.5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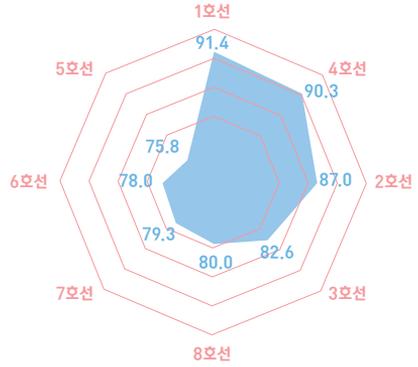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지하도상가

출처 서울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각년도 (서울시 기준: 140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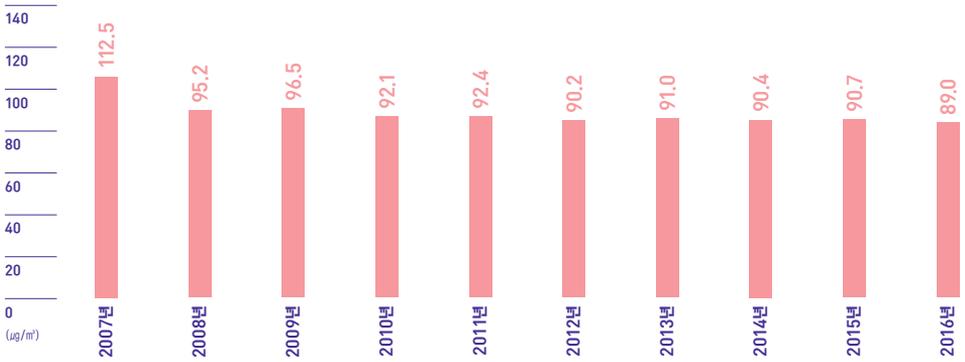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지하역사(1~8호선)

출처 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1~8호선), 각년도
(서울시 기준: 140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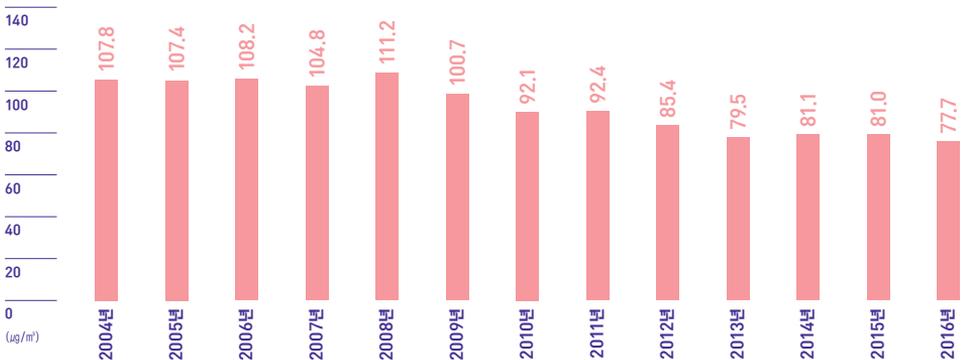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서울메트로 (1~4호선)

출처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각년도
(서울시 기준: 140 $\mu\text{g}/\text{m}^3$)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출처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각년도
(서울시 기준: 140 $\mu\text{g}/\text{m}^3$)



III.

서울시민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in Seoul



서울시민은 어느 정도 행복할까?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일까?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서울시민은 어느 정도 행복할까?

행복 점수	
대학원 이상	7.43점
500만원 이상	7.44점
10대	7.38점

서울시민의 평균 행복 점수는 2017년 기준 7.09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정도가 8~9점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 행복 점수는 10대부터 50대까지는 7점대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의 행복 점수는 6.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행복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과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서울서베이 결과는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 0.03점 높게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행복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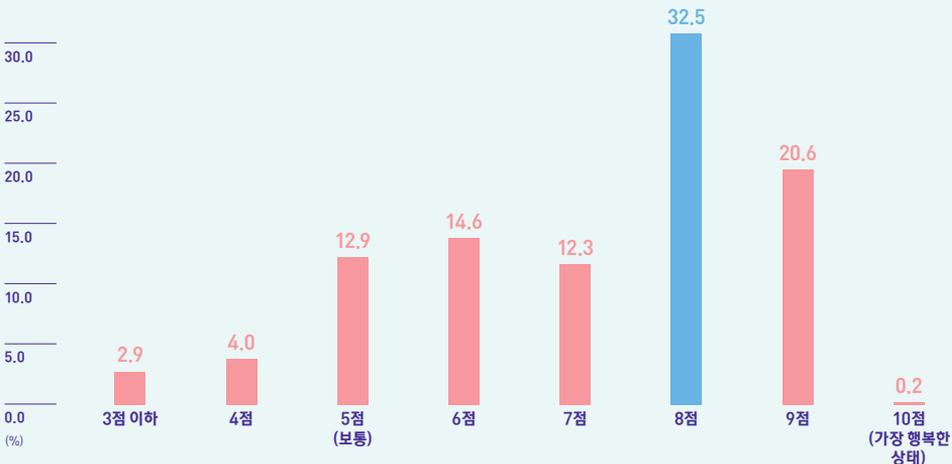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7.09 점



행복 점수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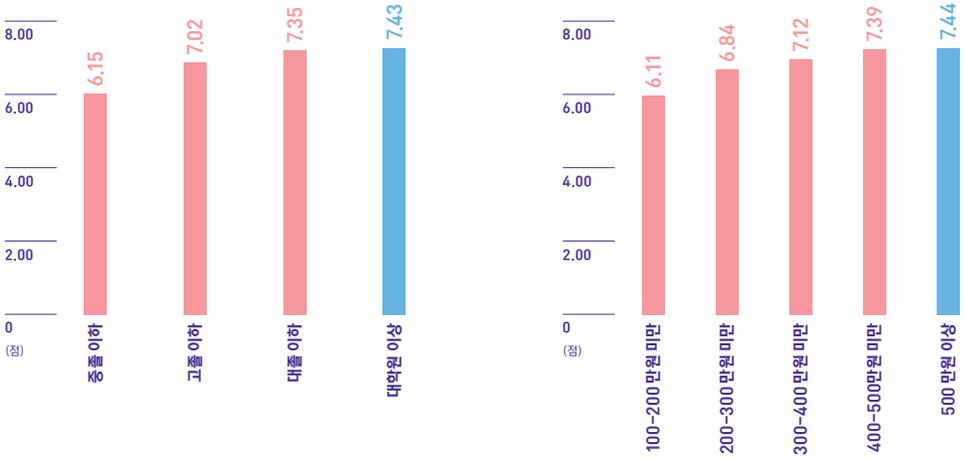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017년 질문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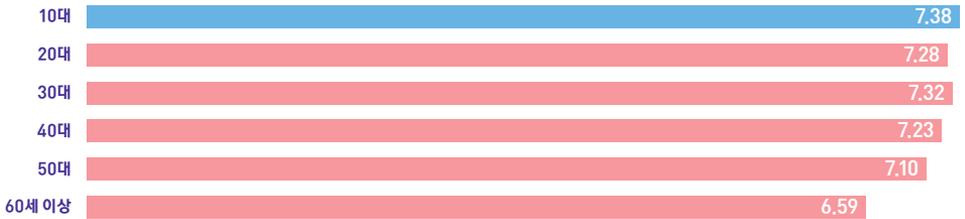
학력과 소득별 평균 행복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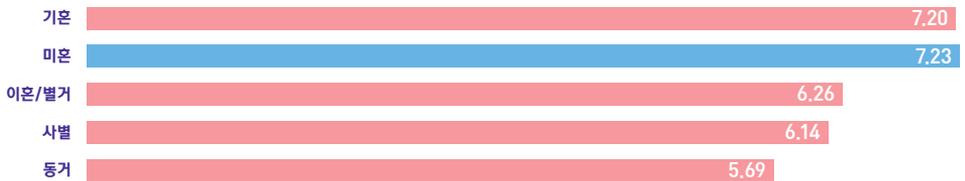
연령별 행복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결혼상태에 따른 행복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정도	
10대	6.80점
대학원 이상	6.80점
500만원 이상	6.51점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인 54.0%가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체감하였고, 이 중 21.2%는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원 이상,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다'는 비율이 높았고, 성동구와 강북구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체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4.0%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체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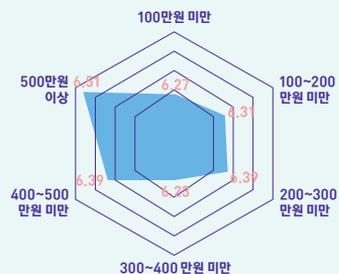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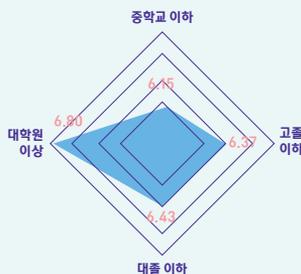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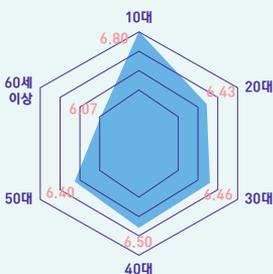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연령별/학력별/소득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정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10점 만점)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일까?

서울시민의 지난 2주간 스트레스 1순위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이 27.6%로 가장 많았고, 대인 관계(21.1%), 재정상태 (16.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스트레스 요인을 비교하면, 10대는 42.5%, 20대는 32.8%로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에 의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는 건강상태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령별로 주된 스트레스 요인의 차이가 존재했다.

스트레스 요인(1순위) :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27.6%



60세 이상 : 건강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34.5%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요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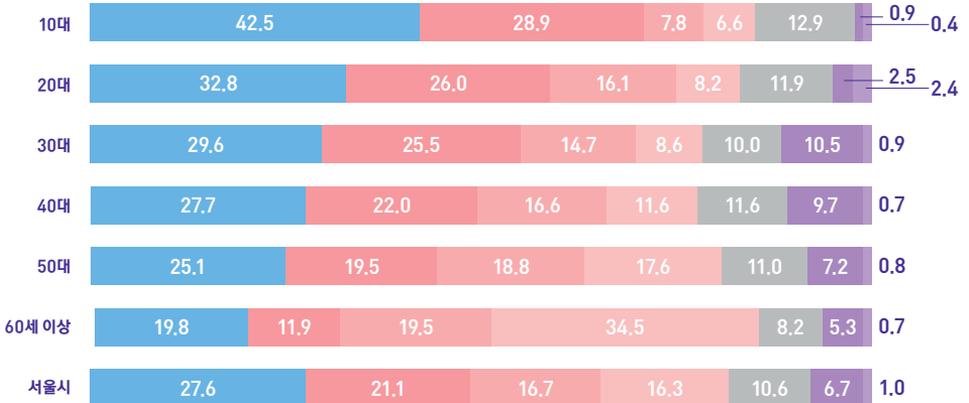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연령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요인(1순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
-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 재정상태
- 건강상태(본인 혹은 가족)
- 가족, 친구와의 관계
- 가정관리
- 실업



* 기타 제외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건강만족도	
500만원 이상	7.45점
10대	7.95점

2017년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평균 7.19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종로구, 강남구, 관악구, 도봉구의 건강 만족도가 7.4점대로 25개 자치구 중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노원구(7.00점), 동작구(7.00점), 동대문구(6.94점)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건강만족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건강만족도가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400~500만원(7.44점), 300~400만원(7.30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건강만족도가 6.15점으로 가장 낮았다. 50대는 7.04점, 40대 7.39점, 30대 7.66점, 20대 7.75점, 10대 7.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만족도 평균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7.19 점



평균 건강 만족도 최고점 지역 :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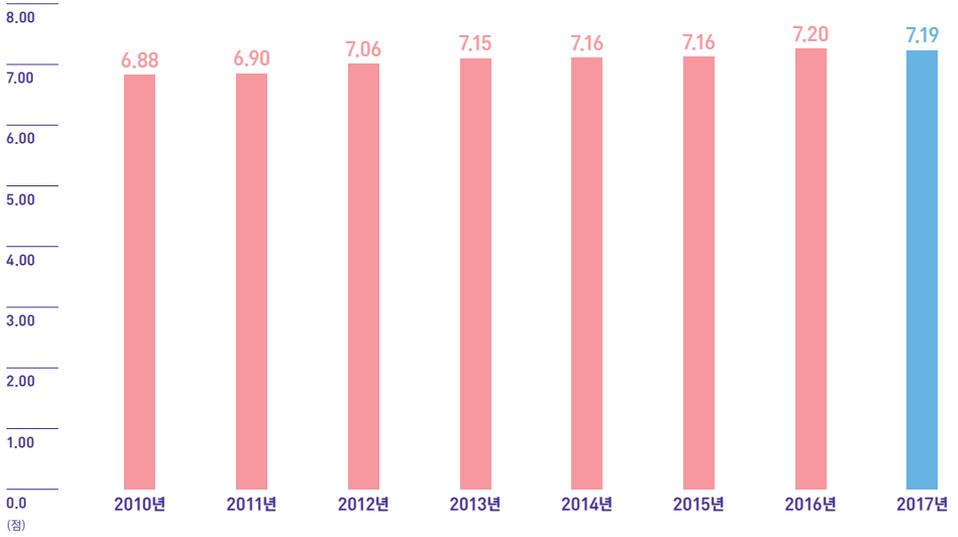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7.47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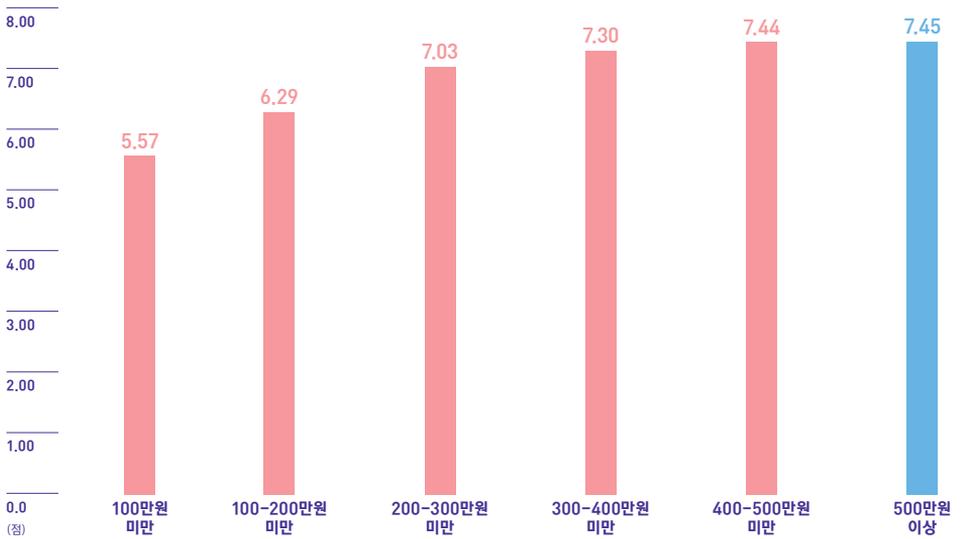
건강상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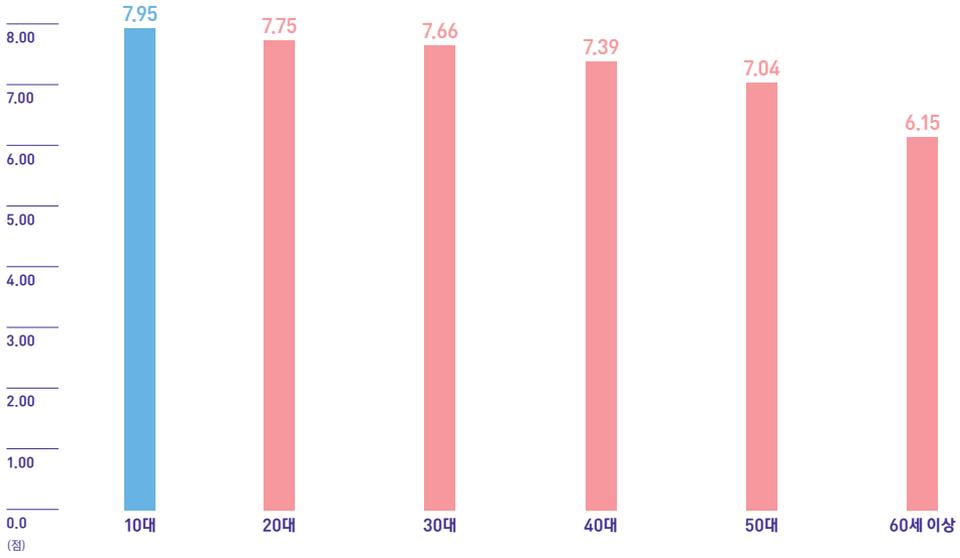
소득별 건강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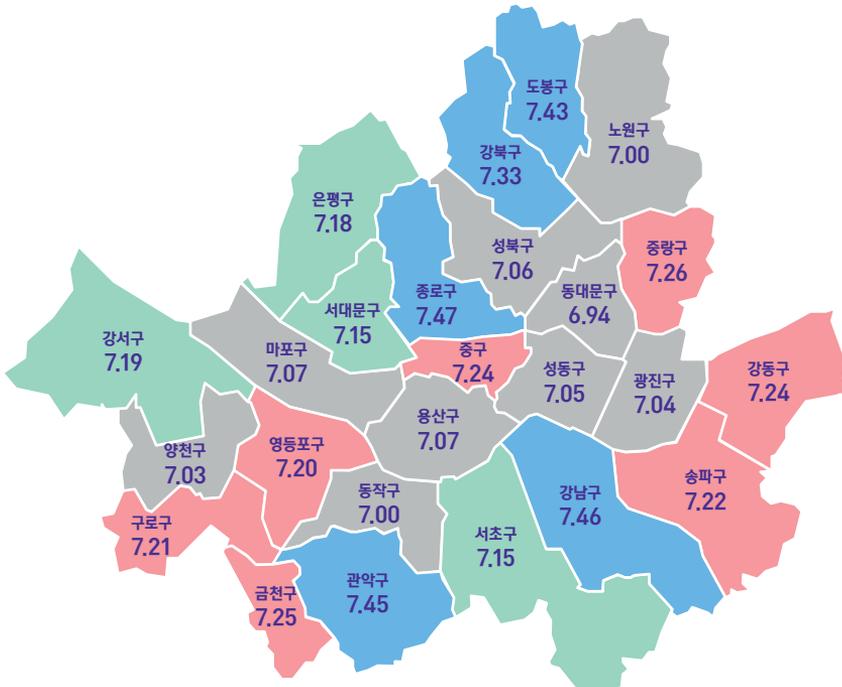
연령별 건강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구별 평균 건강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	42.0%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거의 하지 않음	58.0%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2017년 서울서베이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 3회 이상 또는 주 1~2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1.2%, 20.9%로 나타났으며,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거의 안하는 응답자는 각각 29.6%, 28.4%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54.8%는 공원 및 산 등의 자연 산책로를 이용하며, 전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5.9%를 차지하였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 보면 49.7%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34.7%는 개인의 기호 문제로 운동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운동을 참여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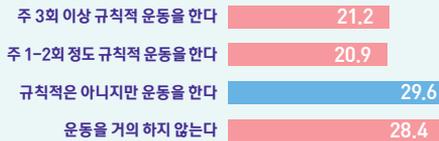
주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응답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2.0%

규칙적 운동 현황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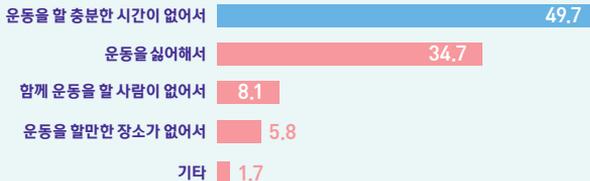
주 운동 장소 (규칙+비규칙 운동자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비운동 이유(비운동자 기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경제사회적 지위는 6.14점(최하층 1점~최상층 10점 분포)으로 나타났다. 7점 정도의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3%로 가장 많으며, 6점(27.7%), 5점(16.8%)에 속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성장할 당시(15세 전후)의 경제사회적 지위 평균점수는 5.78점으로 조사돼, 성장기에 비해 자신의 현재 지위가 상승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경제사회적 지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6.14 점



성장할 당시의 경제사회적 지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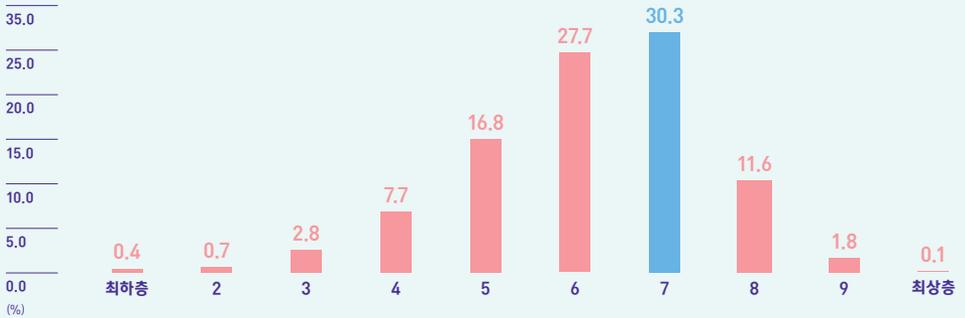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5.78 점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성장 당시(15세 전후)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지난 5년간 계층이동 가능성
 긍정적 30-35%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을 낙관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지난 5년간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 3~4명 정도인 30~35%로 나타난 반면, 그러한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5~70%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점수가 각각 4.78점, 4.82점, 4.8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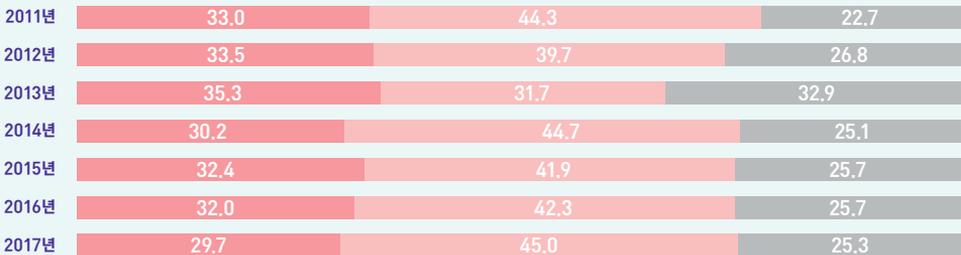
5.08 점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 높다 ■ 보통 ■ 낮다



IV.

서울의 시민의식과 가치

Civic Consciousness and Values in Seoul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시민은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서울시민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까?

서울시민의 사회적 지원 연결망 정도는?

서울시민의 결혼 가치관은?

서울시민의 집안일 실천 정도는?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부모 부양 주 책임자는?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활동 분야별 참여 횟수	
사회적 약자 지원	4.40회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	4.05회
환경보전과 보호	3.81회
자녀교육	3.66회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7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2.9%로, 5년 전인 2012년 22.7%에 비해 9.8%p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양천구, 종로구, 성북구가 각각 18.1%, 17.9%, 17.2%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반면 관악구, 노원구, 금천구의 참여율은 8.1%, 9.3%, 9.4%로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 참여 횟수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분야가 4.4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능나눔/문화예술(4.05회), 환경보전과 보호(3.81회), 자녀교육(3.66회), 재난재해/응급(2.10회), 국제사회(1.98회)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12.9%



10대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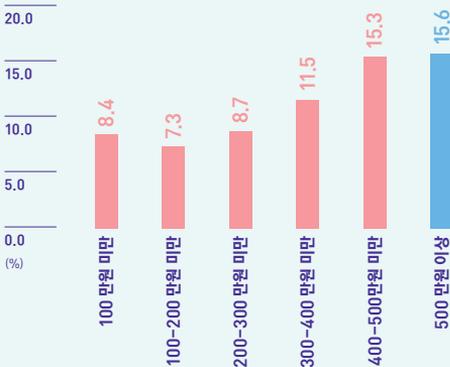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39.2%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활동분야별 참여 횟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회)

구분	2017년
환경보전 관련 분야	3.81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4.40
재능나눔, 문화예술 분야	4.05
재난재해, 응급 관련 분야	2.10
자녀교육 관련 분야	3.66
국제사회 관련 분야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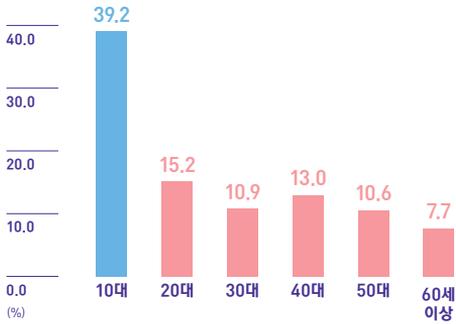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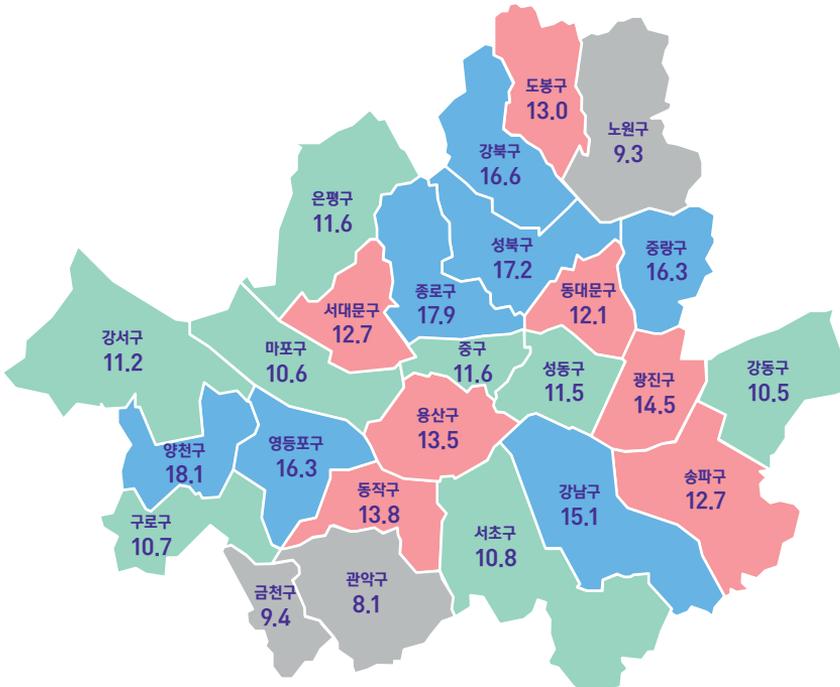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구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구별 상위 기부 참여율	
서초구	46.3%
영등포구	44.9%
종로구	43.3%

2017년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39.3%로, 2016년에 비해 0.5%p 감소하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66.8%)이, 연령대별로는 40대(45.3%),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5.1%)에서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에서 각각 46.3%, 44.9%,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원구, 동대문구, 구로구는 각각 32.5%, 33.7%, 3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부 형태를 살펴보면 모금단체(기관)를 통한 후원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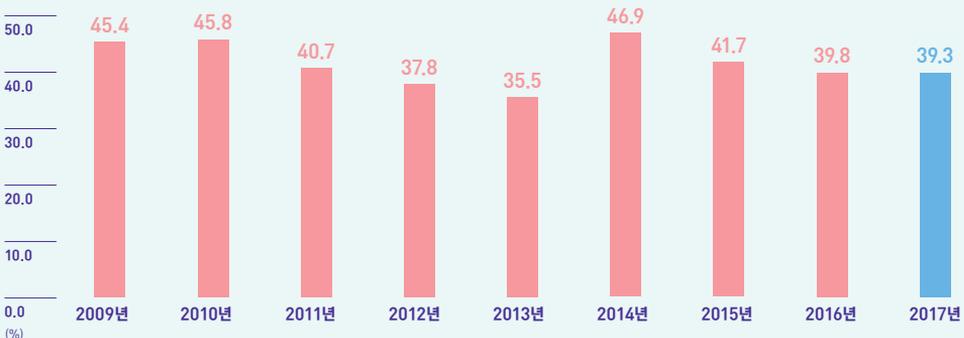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39.3%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기부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연령별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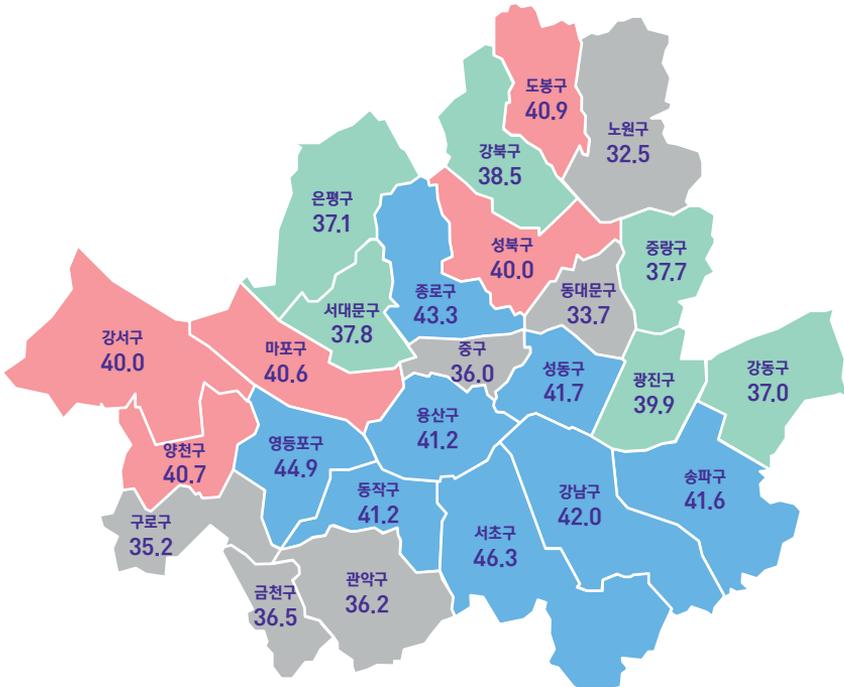
학력별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구별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장애인과과의 스스럼없는 교류, 즉 어울림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서울 시민의 태도는 2017년 6.16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0.04점 상승하였다.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동의정도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400~500만원 미만(6.27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중구, 영등포구, 광진구가 각각 6.91점, 6.86점, 6.75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가 각각 5.68점, 5.76점, 5.77점으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장애아 어울림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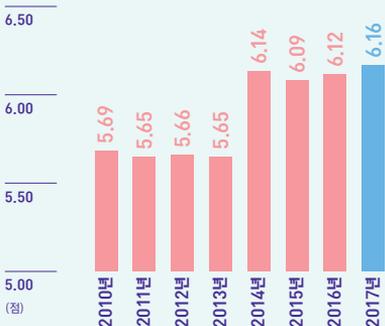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6.16 점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학력별 장애아 어울림 동의 정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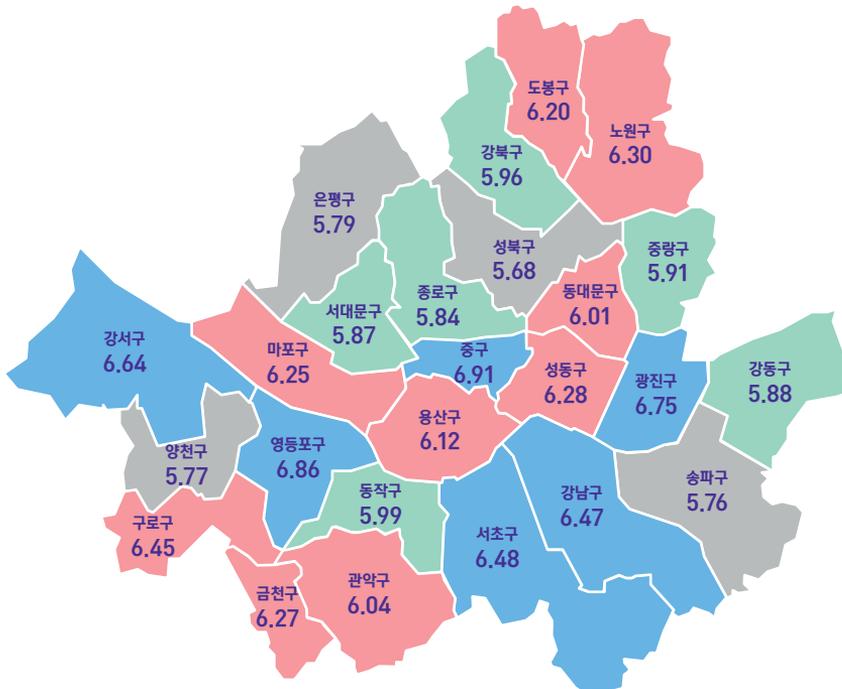
연령별, 소득별 장애아 어울림 동의 정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구별 장애아 어울림 동의 정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서울의 고령 인구는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 부담의 가중은 미래 서울의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려는 서울시민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2017년 기준 고령자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사에 대한 동의 정도는 5.09점(10점만점)으로 '보통' 정도의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증세 부담에 대한 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30대가 5.00점으로 증세 부담 의향이 가장 낮았고, 50대가 5.0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5.07점)에서 증세 부담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성동구, 강북구, 용산구에서 4.84점, 4.89점, 4.89점으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반면,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는 각각 5.36점, 5.33점, 5.31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고령자 복지 확대 증세 부담 의향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5.09 점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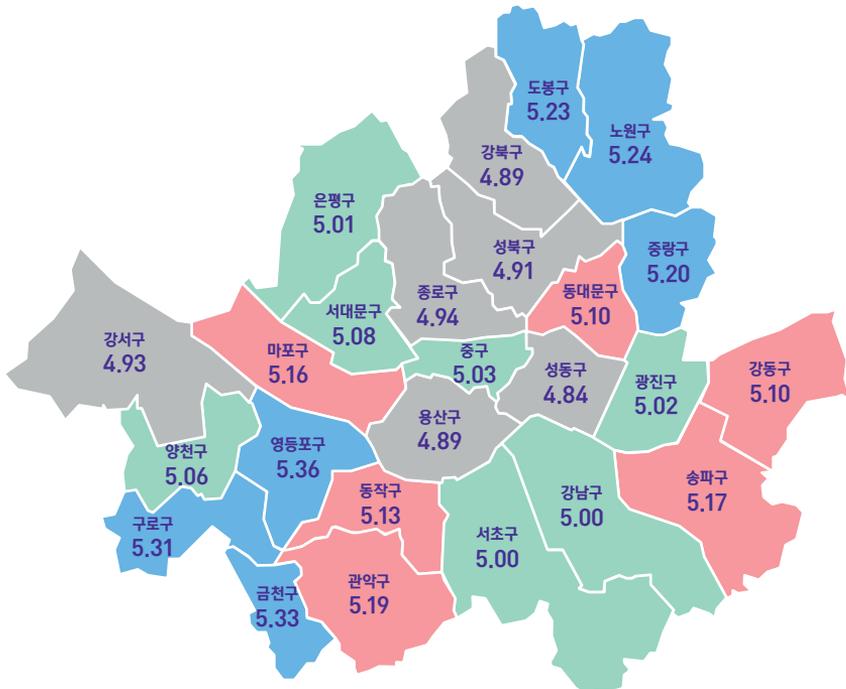
연령별, 학력별 고령자를 위한 증세 부담 의향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구별 고령자를 위한 증세 부담 의향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 시민의 지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0년에 6.27점이었던 지지도는 2017년에 6.02점으로 낮아졌다. 지역적으로는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의 평균 지지도가 각각 5.70점, 5.70점, 5.80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는 각각 6.37점, 6.30점, 6.2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사회참여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6.02 점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계	남자	여자
2000	61.4	74.6	48.8
2001	61.7	74.5	49.6
2002	62.2	75.3	49.8
2003	62.1	74.8	50.2
2004	63.2	75.2	51.9
2005	63.6	75.5	52.4
2006	63.4	75.1	52.5
2007	63.4	75.2	52.3
2008	62.5	74.2	51.6
2009	61.2	73.0	50.3
2010	62.1	73.5	51.6
2011	62.9	74.2	52.4
2012	62.6	73.4	52.5
2013	62.3	73.0	52.5
2014	63.3	73.9	53.5
2015	62.6	73.2	52.8
2016	62.6	72.8	53.2
2017	63.1	72.9	54.0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학력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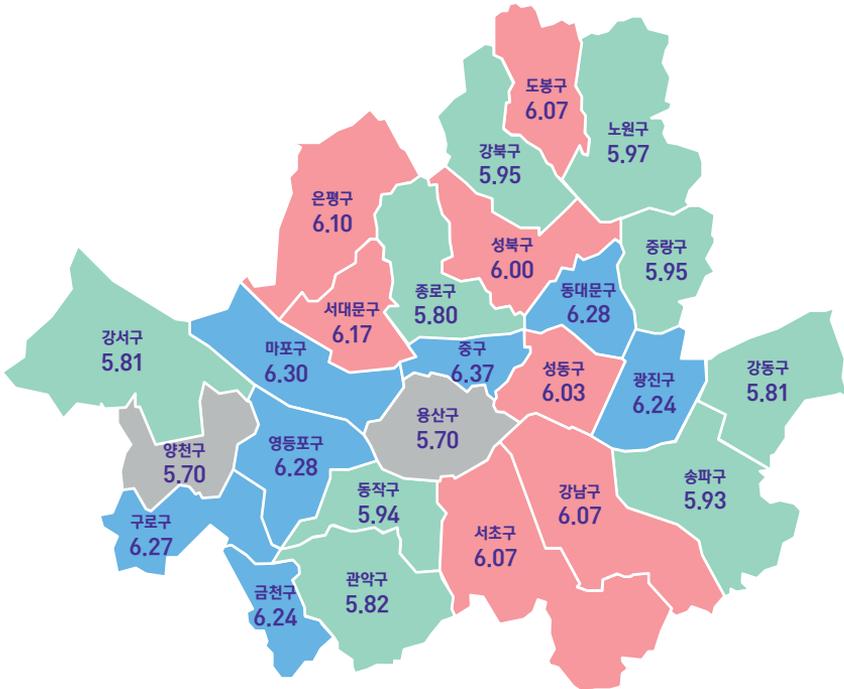
연령별, 소득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구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2017년 이웃신뢰 응답자

37.7%

2017년 서울시민의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47점으로 나타났다. 이웃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에 불과하고 보통과 불신의 비율은 각각 41.5%와 20.7%였다. 지역적으로는 금천구, 영등구, 강동구가 각각 6.08점, 6.03점, 6.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송파구, 동작구, 양천구는 각각 4.90점, 4.92점, 4.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웃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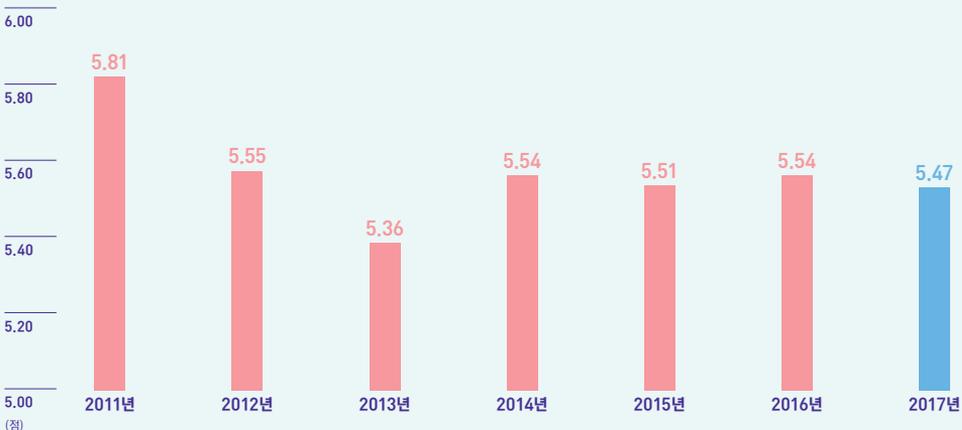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주: 10점 만점)

5.47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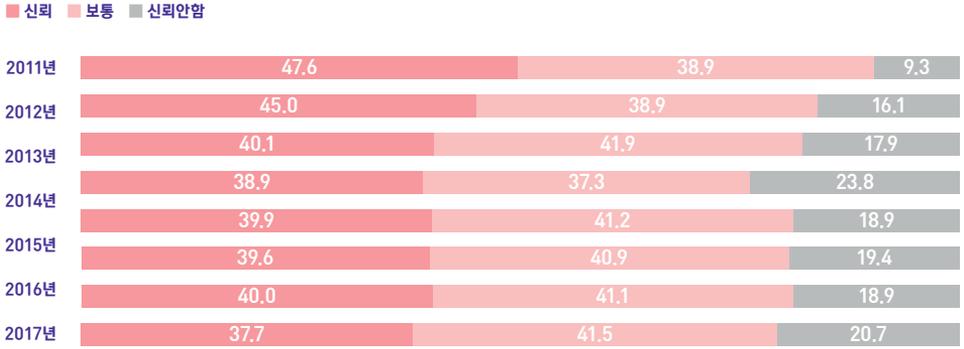
연도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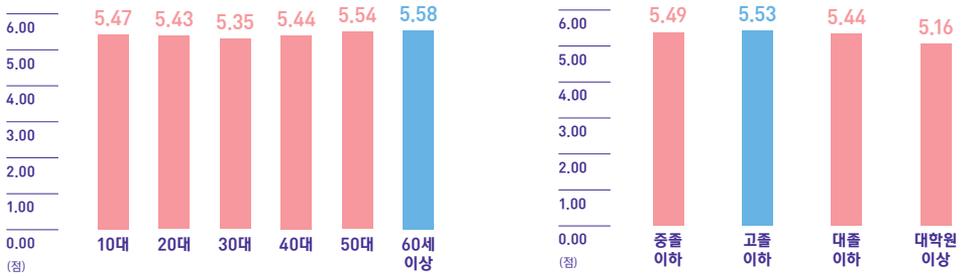
연도별 이웃 신뢰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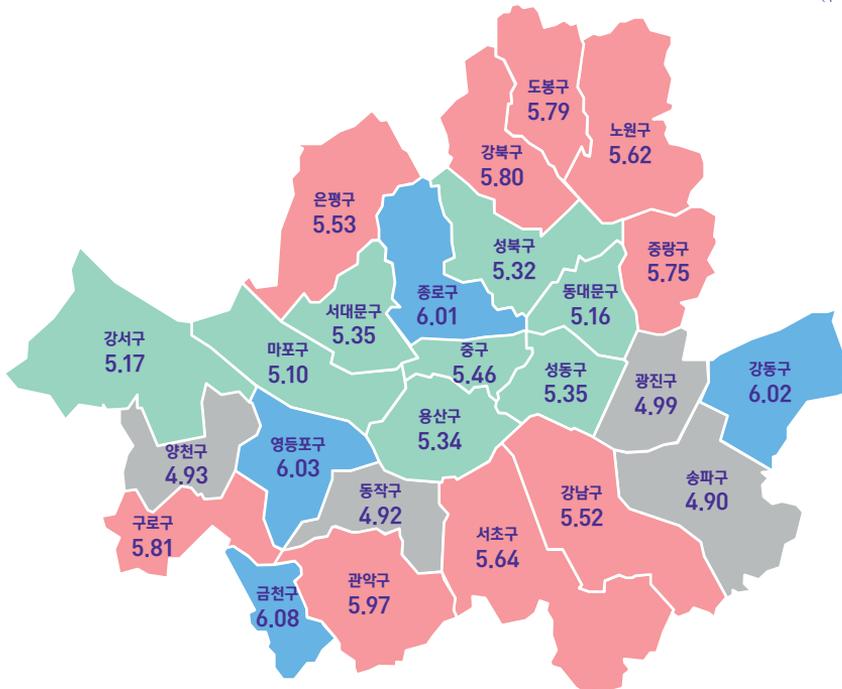
연령별, 학력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구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구별 상위 공공기관 신뢰도	
관악구	5.78점
구로구	5.68점
영등포구	5.65점

2017년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18점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신뢰 비율은 32.5%, 보통과 불신 비율은 각각 43.6%, 24.0%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27점)에서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5.06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가 각각 5.78점, 5.68점, 5.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포구, 동작구, 양천구가 각각 4.68점, 4.72점, 4.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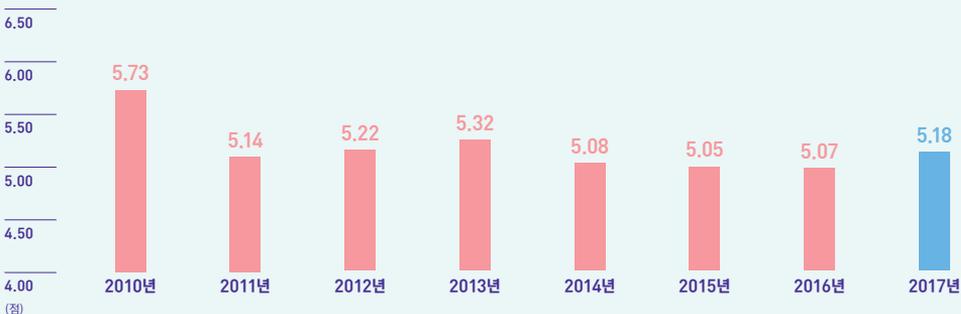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5.18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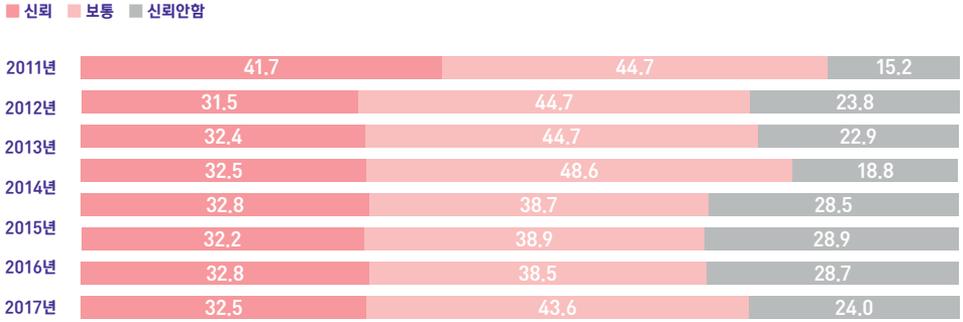
연도별 공공기관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 10점 만점)



연도별 공공기관 신뢰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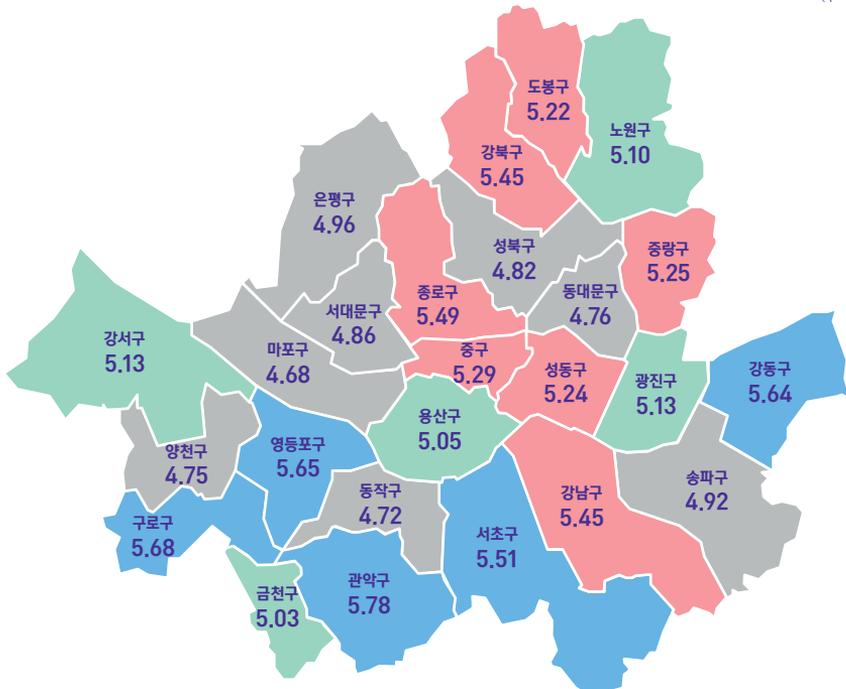
연령별, 학력별 공공기관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구별 공공기관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까?

시민들에게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일반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10명 중 5~6명 정도인 53.1%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항상 신뢰 13.5%, 대체로 신뢰 39.6%)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시민들의 일반 신뢰 정도는 5.32점(10점 만점)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도 5.47점에 비해 0.15점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의 일반인인에 대한 신뢰 정도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0대의 일반인 신뢰도가 5.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5.35점, 40대 5.30점, 60세 이상 5.30점, 50대 5.29점, 20대 5.28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일반 신뢰 정도는 종로구(5.79점), 동작구(5.71점), 강북구(5.68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광진구(4.98점), 마포구(5.00점), 송파구(5.08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일반사람 신뢰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3.1%



10대의 일반사람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5.60 점



연도별 일반사람 신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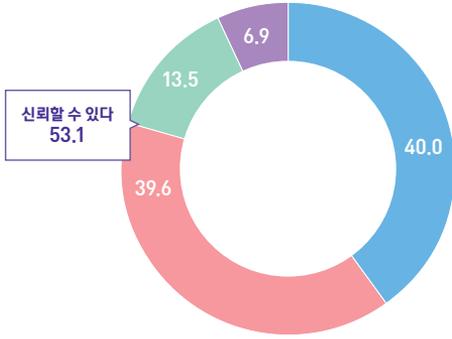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단위: %)



일반사람 신뢰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 항상 신뢰할 수 있다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 항상 조심해야 한다



연령별 일반사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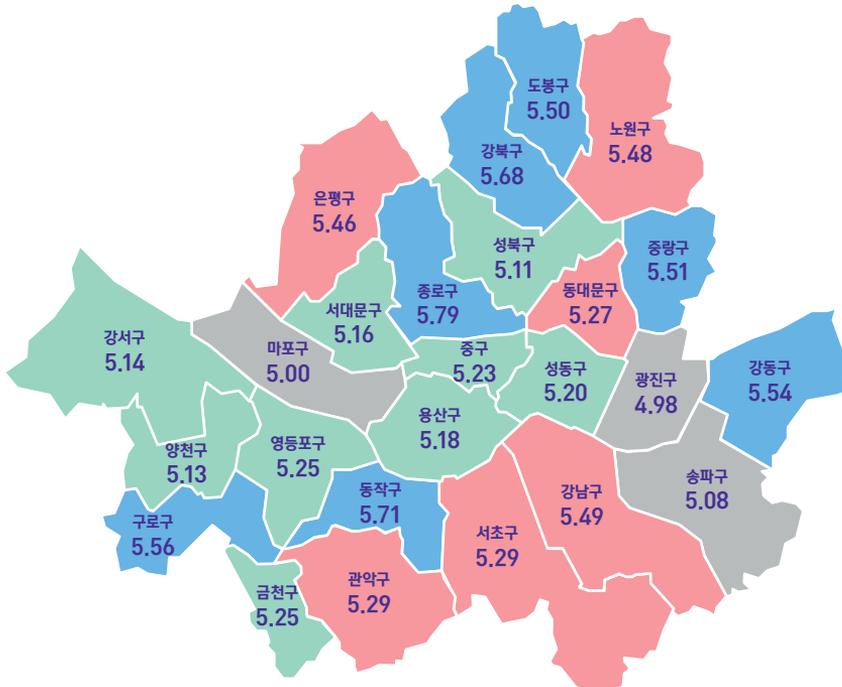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 질문: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① 항상 조심해야 한다 ②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③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④ 항상 신뢰할 수 있다

구별 일반사람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의 사회적 지원 연결망 정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원망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서울시민들의 지원 연결망을 보살핌 지원, 금전적 지원, 감정적 지원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은 65.3%인 반면 서울시민 10명 중 3~4명(34.7%)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보살핌 지원망은 대부분의 시민들(82.8%)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적 지원망으로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7.6%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 정도는 소득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금전적 지원망 보유 응답률은 40.4%에 불과해, 서울시민 평균인 65.3%에 비해 약 24.9%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살핌 지원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82.8%



100만원미만 소득계층 중 금전적 지원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0.4%



연도별 사회적 지원 연결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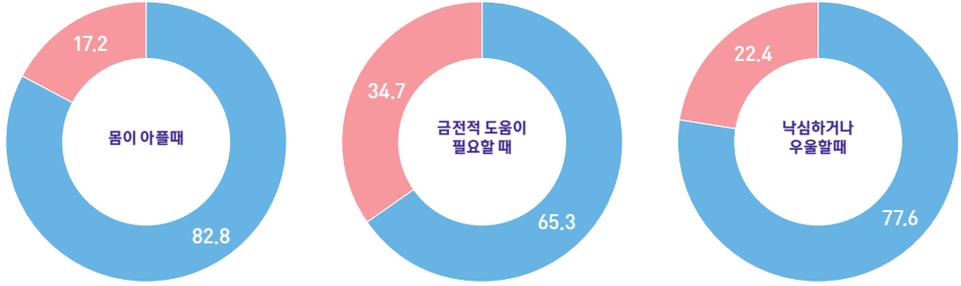
■ 2015 ■ 2016 ■ 2017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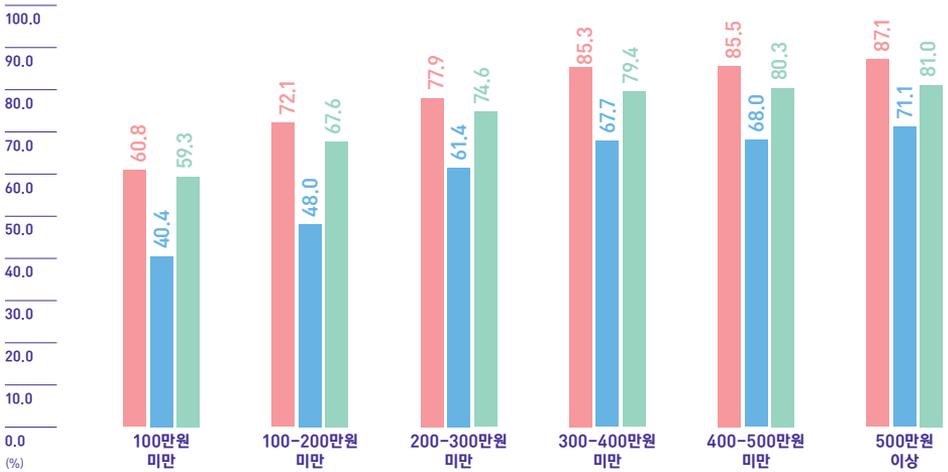
■ 있다
■ 없다



소득별/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 몸이 아플 때 ■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서울시민의 결혼 가치는?

결혼한 사람이 대체로 더 행복하다

47.0%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44.7%

서울시민의 47.0%가 '결혼한 사람이 대체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의 주된 장점은 경제적 안정을 주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47.8%로 조사되었으며, '잘못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찬성 28.9%, 보통 31.9%, 반대 39.2%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들은 35.4%를 차지하였으며,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서울시민들도 찬성 44.7%, 보통 35.6%, 반대 19.6%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이 주는 행복감과 경제적 안정감,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한부모 자녀 양육과 동거, 그리고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혼'자들은 '미혼'자들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기혼'자들이 동거와 이혼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혼'자들은 동거와 이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사람이 대체로 더 행복하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5.81 점



결혼의 주된 장점은 경제적 안정이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5.91 점



결혼을 안하는 것보다 하는게 낫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4.59 점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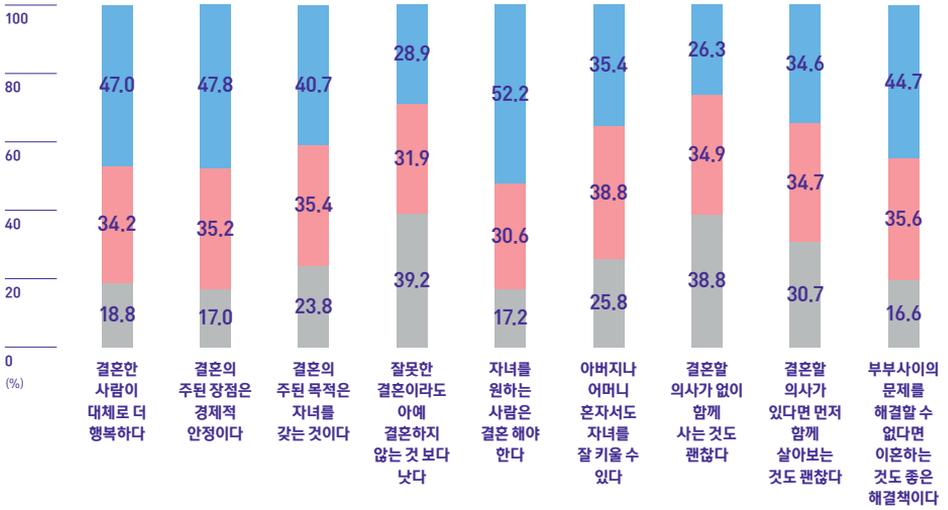
5.72 점



서울시민의 결혼 가치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 찬성 ■ 보통 ■ 반대



연령별/혼인상태별 결혼 가치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주: 10점 만점)

	결혼한 사람이 대체로 더 행복하다	결혼의 주된 장점은 경제적 안정이다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	잘못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 보다 낫다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 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10대	5.33	5.44	5.03	4.35	5.66	5.37	4.69	5.44	6.09
20대	5.59	5.61	5.17	4.37	5.79	5.44	5.03	5.54	6.09
30대	5.76	5.84	5.38	4.39	6.02	5.21	4.77	5.38	5.87
40대	5.80	5.90	5.45	4.54	6.07	5.25	4.61	5.07	5.80
50대	5.89	6.00	5.62	4.72	6.19	5.27	4.40	4.86	5.69
60세이상	6.09	6.25	5.95	4.90	6.41	5.11	3.99	4.36	5.18
전체	5.81	5.91	5.51	4.59	6.09	5.25	4.53	5.02	5.72

	결혼한 사람이 대체로 더 행복하다	결혼의 주된 장점은 경제적 안정이다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	잘못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 보다 낫다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 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기혼	6.00	6.07	5.66	4.68	6.20	5.20	4.37	4.84	5.59
미혼	5.46	5.58	5.13	4.36	5.80	5.36	4.93	5.51	6.05
이혼/별거	5.58	5.68	5.60	4.52	6.16	5.38	4.78	5.15	5.99
사별	5.96	6.12	5.86	4.85	6.42	5.15	3.96	4.36	5.18
동거	7.28	7.73	5.55	4.57	4.63	6.56	5.80	6.48	6.33

2017년 질문 귀하는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 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서울시민의 집안일 실천 정도는?

서울 시민들의 집안일 실천 정도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4~5명이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식사 준비는 31.2%가 거의 매일 준비한다고 응답하였고, 집안청소와 세탁은 각각 20.9%와 16.3%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집안일 실천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2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저녁식사 준비(51.2%)를 하며, 여성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집안 청소(34.0%)와 세탁(26.8%)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이 '거의 매일' 집안일을 하는 비중은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남성의 집안일 실천 정도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60세 이상의 저녁식사 준비 13.9%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들은 10% 미만의 집안일 실천율을 보였다.

저녁식사 준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8.0%



세탁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3.9%



집안 청소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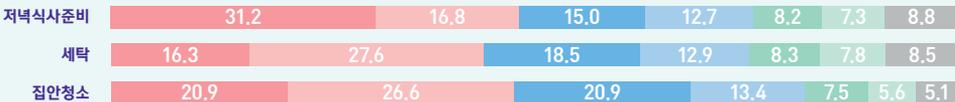


주 : 집안일 실천률('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집안일 실천 정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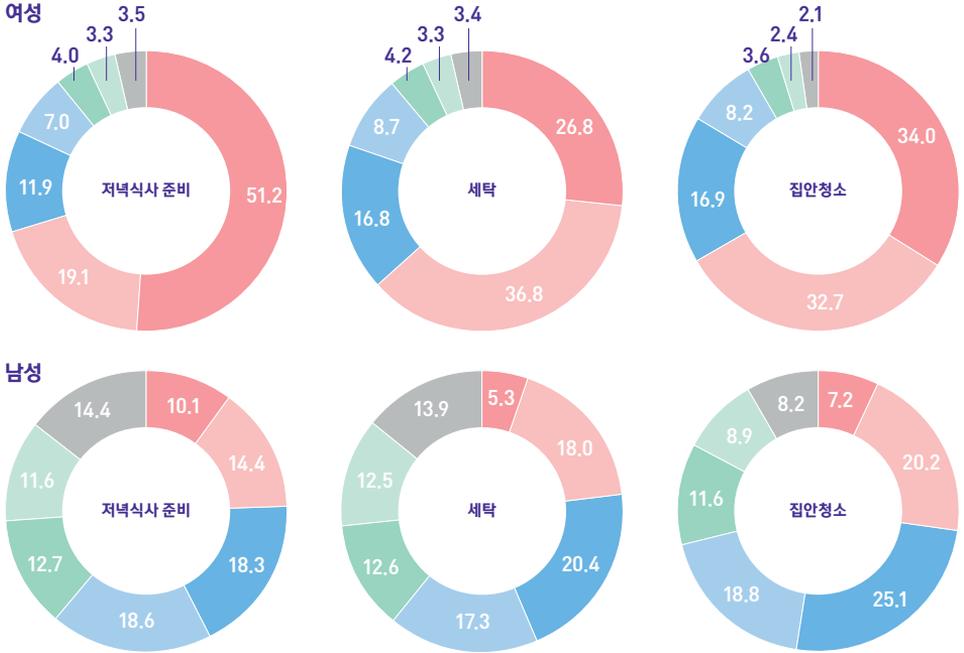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 일주일에 한 번
 ■ 한달에 두세 번
 ■ 한달에 한 번
 ■ 일년에 몇 번
 ■ 일년에 한번 이하



성별 집안일 실천 정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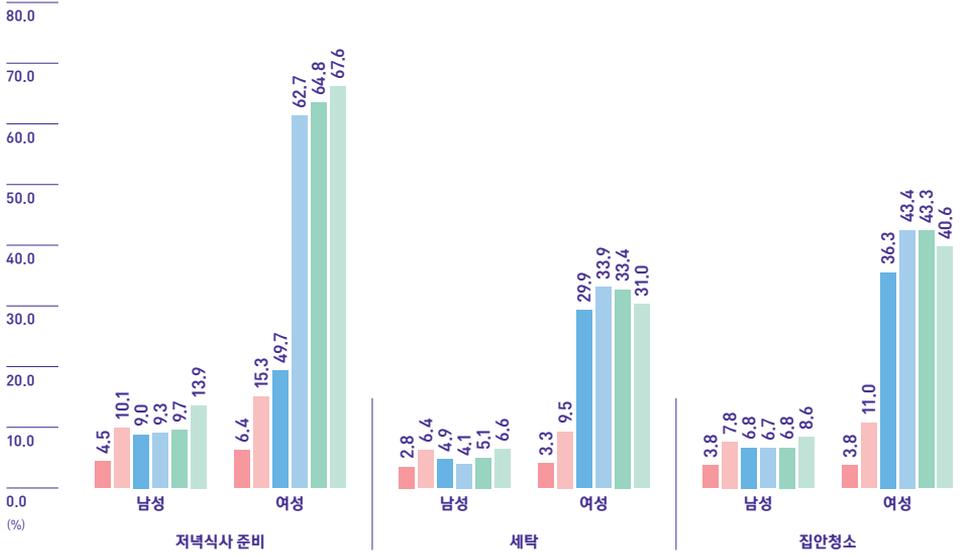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 일주일에 한 번 ■ 한달에 두 세 번 ■ 한달에 한 번 ■ 일년에 몇 번 ■ 일년에 한 번 이하



성별/연령별 집안일 실천 정도 (거의 매일)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2017년 질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부모 부양 주 책임자는?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서울시민의 69.6%가 '아들, 딸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이라고 응답해 부모 부양의 주 책임자는 가족 공통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공통 책임 의식은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장남'이 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5.1%,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부모 부양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는 서울시민들의 비중은 19.4%를 차지하였다.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69.6%



장남 또는 그 가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5.1%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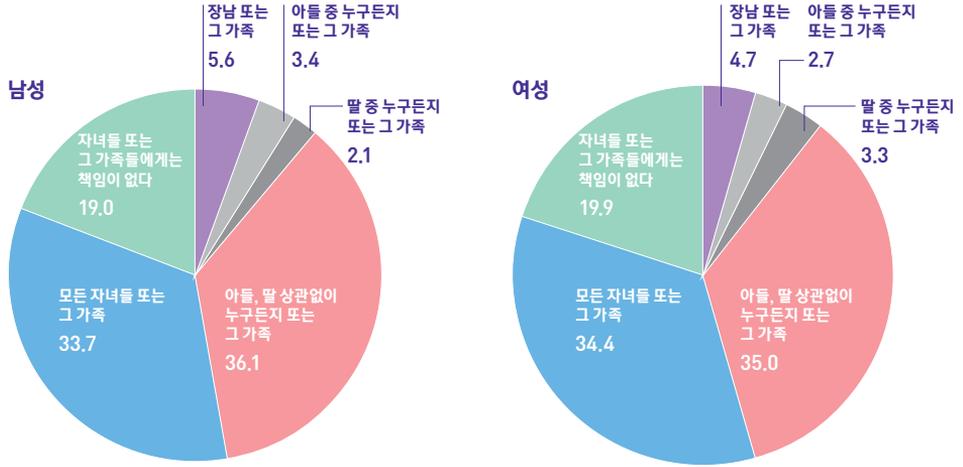
부모부양 주 책임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성별 부모부양주 책임자 인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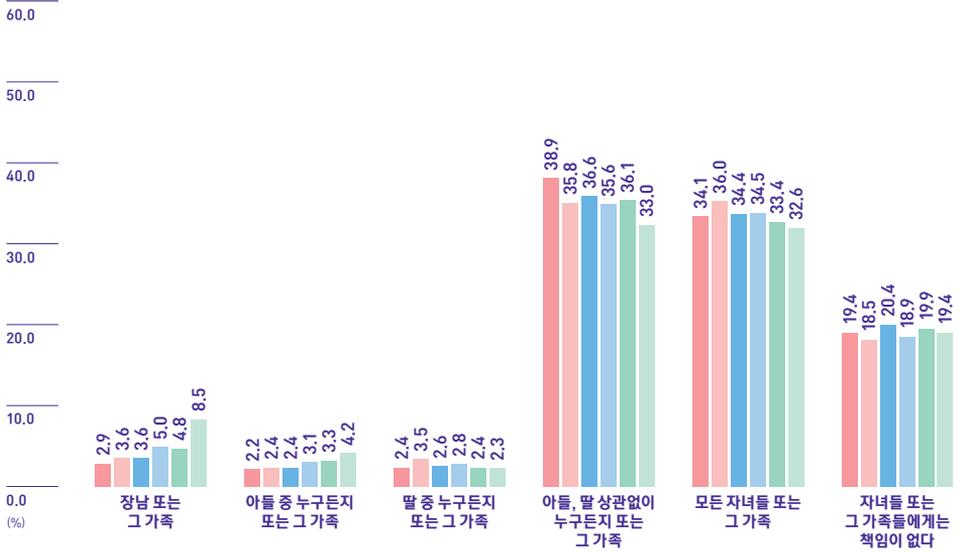


*기타 제외

연령별 부모부양주 책임자 인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2017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기타 제외

2017년 질문 귀하는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서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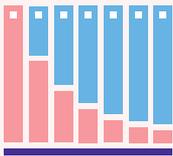
Seoul Survey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서울서베이의 활용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

서울서베이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도시정책지표 체계이다. 지표의 자료 구축을 위해 행정자료 및 가구조사, 외국인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구축된 데이터의 다차원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영향 분석을 통해 서울의 사회상과 정책 분야별 아젠더를 제기하고 있다.



구성

- 12개 분야, 32개 영역, 209개 지표로 구성
- 지표의 데이터는 매년 4만6천명 내외의 서울 시민, 2,500명의 서울거주 외국인,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역할

- 가구 현황, 주거와 생활, 세대와 계층, 경제, 복지, 교통, 환경, 가치와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



활용

- 서울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시기 맞춤형 정책 모색
-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향상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와 가구	· 서울보통사람 · 서울거주외국인	25
경제	· 경제기반 · 기업환경 · 인적자원역량	16
주거와 생활	· 주거 · 소비 · 지역인프라	18
교육과 보육	· 교육환경 · 보육환경	12
건강과 보건	· 건강안삶 · 지역보건	14
안전과 재난	· 재난안전 · 교통안전 · 사회안전	18
환경	· 대기와 녹지 · 물환경과 폐기물 · 에너지	14
교통	· 교통인프라 · 교통서비스 · 보행환경	22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양유 · 문화기반 · 문화시장	17
거버넌스	· 시민참여 · 정보행정과 활용	12
복지와 여성	· 사회적 약자 보호 · 고령자 생활 · 성 평등성	21
가치와 의식	· 가족과 공동체 · 포용성 · 정체성	20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서울시민조사

조사대상 서울거주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

표본크기 20,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
(2017년 42,687명)

조사기간 9월

조사방법 가구 방문면접조사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

조사대상 국내 90일 초과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 거주 외국인

표본크기 2,500명

조사기간 9월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 2007년부터 조사 실시
- 2009년 표본크기 확대 (1,000명 → 2,500명)

서울서베이의 활용



정책분석을 위한 종합통계로 과학적인 시정운영에 기여

정책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민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 검증



서울의 현황과 시민 삶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

도시의 변화와 삶의 질, 가치, 의식 등을
시계열로 분석



시정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신뢰 제고

통계 웹진, 원자료,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한 눈에 보는 서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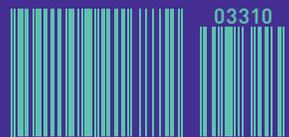
SEOUL at a Glance

발행처	서울특별시
제작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편집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8년 12월
디자인	명진씨앤피
인쇄·제본	02-2164-3000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34-10
ISBN	979-11-5621-687-2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비매품

03310



9 791156 216872

ISBN 979-11-5621-687-2